제3절 고지도에 나타난 마을 이름

제주 고지도에는 우리마을과 관련해서 마을 이름을 비롯하여, 오름, 수산진성, 연못, 진안물, 과원, 수산평 등의 명칭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마을 이름과 관련된 고지도가 있으며, 마을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비고 東輿備考)에는 〈水山〉으로 표기되었다.



▲ 한라장촉 漢拏壯矚(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에는 〈首山〉으로 표기되었다.



▲ 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에는 〈上水山〉 〈下水山〉으로 표기되었다.



▲ 제주삼현도 1 濟州三縣圖 1(해동지도 海東地圖)에는 〈訖前村〉으로 표기되었다.



▲ 제주도지도(무제)에는 마을 이름이<首山村>이라고 표기되었다.



▲ 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에는 마을 이름이<首山><花前>이라고 표기되었다.



▲ 제주삼읍전도 濟州三邑全圖에는 마을 이름이<水山里>라고 표기되었다.



▲ 제주도관내도 濟州島管內圖에는 마을 이름이<花南洞>이라고 표기되었다.



▲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마을 이름이<花前村>이라고 표기되었다.



▲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에는 마을 이름이 <花南村>이라고 표기되었다.



▲ 제주도도 濟州島圖에는 마을 이름이 <水山村>이라고 표기되었다.



▲ 성산리 城山里(미육군 극동지도국)에는 마을 이름이 <수산리>라고 한글로 표기되었다.



▲ 성산리城山里(대한민국 육군측지 부대) 지도에는 <수산일리>와 <수산이리>로 표기되었다.



▲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에는 마을 이름이 <水山里> <花南洞> <黃茂藪>로 표기되었다.



▲ 제주지질도 濟州地質圖에는 마을 이름이 <水山里>와 <花南洞>으로 표기되었다.



▲ 제주도관광안내도 濟州道觀光案內圖에는 마을 이름이 <水山里, 水山2里>라고 표기되었다.

제4절 옛날의 수산경(水山境)

옛날의 수산경(水山境) 원래의 수산경(水山境)은 마을 서쪽으로는 대틈에서부터, 동쪽으로는 현재의 고성리경 및 해안으로는 고성리와 온평리 경계에 있는 <수산깃>[50]까지였다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는 정설로 굳어져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조선시대에 와서 제주도는 1416년(태종 16)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의 고성리인 〈首山〉은 정의현의 하부단위를 이루게 되며, 정의현청의 소재지가 된다. 그러나 〈首山〉은 현청 소재지로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당시 현감 이이(李貽)가 〈首山〉은 현청 소재지로서 너무 협소하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정문(呈文)을 올리자 전라도 관찰사가 조정으로 사의를 올려 1423년(세종 5) 지금의 성읍리로 옮겨졌다.[51]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 과거 <수산깃>으로 불렸던 장소이다. 신양리 포구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까지이다. <짓근개>는 신양리와 온평리 연안의 경계에 있다.



▲ 수산성조 首山城操(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에는 지금의 고성리를 〈舊首山〉, 지금의 대수산봉을 〈首山望〉으로 표기하고 있다.

『수산성조 首山城操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에 의해서도 수산경을 짐작 할 수가 있다. 당시 화첩에는 지금의 古城(고성)을 舊首山(구수산) 古城(고성),[52] 대수산봉 봉수대를 〈首山望〉으로 우리마을 이름으로 기록되었던 한자어인 〈首山〉과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50) 수산깃: 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지금의 신양리 앞바다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온평리 해안인 속칭 〈서근이〉 곁인 〈짓근개〉 까지 〈수산깃〉으로 인식하고 있다.
51)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서귀포시 Ⅲ, 성산읍, 표선면, 2014)
52) 舊首山 古城: 과거 首山境에 있었던 오래된 城이라고 표기되었다.



▲ 지금의 고성을 〈旧首〉, 지금의 대수산봉을 〈首山望〉라고 표기되었다. (한라장촉 漢拏壯矚, 1703)

다른 하나는 『한라장촉 漢拏壯矚(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에도 지금의 대수산봉의 봉수대를 〈首山望(수산망)〉, 지금의 古城里를 홍색의 타원형으로 표시하여 〈旧首(구수)〉[53]라고 표기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다른 고문서에는 首山의 위치, 小首山 위치, 首山坪 위치와 거리, 果園이름, 大池, 首山城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首山은 지금의 대수산봉을 가르키고 있으며(在縣東二十四里(재현동이십사리), 首山(수산)은 정의현청에서 24리 거리에 있다). 小首山은 지금의 小水山峰을 말하고 있다(自水山所東距五里自縣東距二十一里東應城山西應獨子己上首山所屬(자수산소동거오리자현동거이십일리동응성산서응독자기상수산소독), 수산방호소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5리다. 정의현청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21리이다. 동쪽으로 성산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독자봉수에 응한다. 이상은 수산방호소에 속한다)라고 되어있다.[54] 몇몇 고문서와 고지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근거로 유추해 보면 지금의 고성리와 대수산봉, 수산봉도 당시에는 모두 首山(지금의 水山)에 속해 있었다고 추정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하나는 1323년(충숙왕 10)부터 1556년(명종 11)까지 왜구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았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1439년(세종 21) 한승순을 안무사로 임명하고 수산진을 축성하고 수산봉(首山峰), 성산(城山), 지미봉(地尾峰) 등지에 봉수대를, 섭지, 오조포, 종달 등지에 연대(烟臺)를 설치하였는데 우리마을의 경우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병을 차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며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결국 우리마을에서는 현재의 수산과 고성간의 경계와 같이 해안 가까이 거주하는 동네 지경의 해안을 떼어주고 봉수대와 연대(烟臺) 감시병도 해당 동네에서 차출하여 감시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산곶>이라 불리는 바다에는 1945년 8·15 광복까지는 입어(入漁)를 했었는데, 그 후 수산, 온평 간의 어업분쟁이 발생한 과정을 보더라도 <수산곶>까지 水山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3) 旧首: 지금의 고성리를 말하는데 〈山〉자가 빠진 오기로 판단된다. 즉 舊首山으로 추측된다.
54) 國譯增補耽羅志(濟州文化院, 2016)

어업분쟁[55] 과거 수산리 해녀들은 온평리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할 수 있었다. 그 대신 온평리 사람들은 수산리 지경에서 우마를 놓아 기를 수 있었다. 수산리 해녀들이 미역을 채취 할 수 있었던 지역은 온평리와 신양리 경계인 <서근이> 곁에 <짓근개>라는 지역이다. 과거에 어업조합이 진흥회일 당시 수산리에는 30여명이 해녀가 있었는데, 온평리 다른 바다에는 입어를 할 수 없지만 <짓근개>에서는 미역을 채취할 수가 있었다. 당시 조직을 정비할 때 진흥회가 제주어업조합으로 바뀌면서 조합비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탈퇴가 되자 온평리에서는 수산리 해녀들이 작업하는 것을 막게 되었고, 수산리에서는 그 보복으로 온평리 사람들이 수산리 지역에 우마를 방목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마를 가두어 놓고 한 마리당 50전씩(당시 쌀 한말 값) 받고 찾아가라 하면서 두 마을은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 그후 수산리 해녀들은 온평리에 가서 물질을 못하고 온평리에서는 수산리경에 우마 방목을 못하는 등 두 마을이 분쟁은 심각했었다.

제5절 마을의 사건 및 주민운동

【정의면 대운동회 씨름대회장 항일의거】

사건개요 1927. 5. 16일 정의면 대운동회에서 성산면 청년들이 씨름대회장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항일의거(抗日義擧)이다. 성산면 연합회장(회장 고은삼)이 주최한 대운동회가 고성리 속칭 소금막에서 개최되었다. 마침 마을대항 씨름대회가 한창일 때 풍랑을 피해 성산포에 대피했던 고등어잡이 외래어선의 선원 2백여명이 몰려왔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어부이고 일부 한국인도 고용된 선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어민이 씨름대회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씨름 심판인 박규언(朴奎彦)의 뺨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이


濟州島住民과
漁夫의衝突
고기잡이배사람들과충돌
두편의사상자가만히낫다
雙方形勢頗不穩

▲ 당시 관련기사

55) 우리마을 삶의 문화. 성산읍편(서귀포 문화원, 2014)

에 격분한 성산면 청년회원 5백여 명과 일본어부 2백여 명 사이에 격투가 벌어진 사건이다. 지방 청년들이 난폭한 행동에 휘말려 들 무렵에 오조리 출신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고승운(高承雲)이 지방 청년들을 향해 일본인들을 끝까지 추격하라며 보복을 가했고, 이에 5백여명이 성산면 청년들은 천막의 주목(柱木)을 뽑아 들고 선원 2~3명을 때려 눕혔다. 이에 겁이 난 선원들이 성산포(城山浦), 방두포(內防頭浦)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청년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상대측의 2명이 상해치사(傷害致死)에 이르고 전남 응원경찰이 내도, 이를 진압하고 약 1백여 명의 성산면 청년들은 체포되어 제주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 중 52명은 광주지방법원의 재판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다. 이중 12명은 불복 상고 했으나 2명만 무죄로 판명되고 나머지는 모두 옥고를 치렀지만, 일본 어부들에게는 응징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성산면 청년들의 항일의거는 1931년 제주해녀 항쟁으로 이어지고 또 1932년 추자어민의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유죄판결을 받은 청년들 1927. 12. 16일 광주지방법원과 1928. 12. 15일 대구복심법원 상고결과 상산면 청년들은 소요(騷擾), 상해(傷害), 상해치사(傷害致死) 등의 죄명으로 다수의 정의면 청년들이 유죄를 받았다, 우리마을 청년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 고휴규(高烋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시 44세) ▲ 강승보(康承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시 40세) ▲ 김묘득(金卯得, 징역1년, 당시 37세) ▲ 오응선(吳應璿, 무죄, 당시 35세) ▲ 한원도(韓元道,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시 19세) 등 5명이 옥고를 치르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56]

【제주 4·3사건】

사건개요 1947. 3.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 4.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 9.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7년간(1947~1954)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엄청난 민간인 학살과 물적 피해를 일으켰던 제주 4·3사건의 원뿌리는 분단과 냉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56) 우리마을 삶의 문화, 성산읍편(서귀포 문화원, 2014)



▲ 성산리에 있었던 성산면 서북청년단 주둔소
(城山東公立國民學校 성산리 173-1, 사진 한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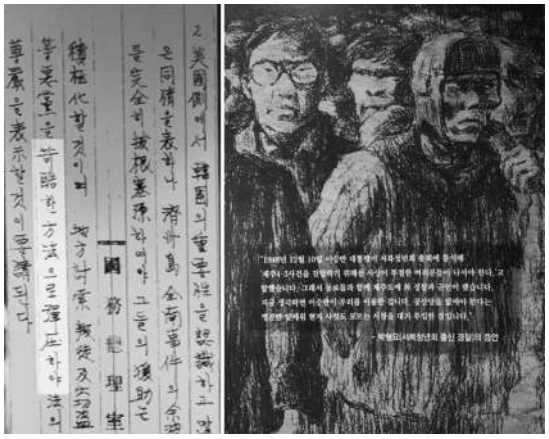
▲ 성산면서북청년단 사무실 현관
(사진제공 한석중)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여 자국에게 우호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산되었고, 1948. 2월 유엔이 가능지역 내의 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자 정국이 요동쳤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던 김구 계열의 우파와 김규식 계열의 중도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 반대 운동에 제주도민들도 적극 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참혹한 유혈 사태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에서 1947. 3. 1일에 대규모 기념대회를 열어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촉구하였는데, 시위가 끝날 무렵 기마경찰의 탄 말에 어린아이가 차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모르고 지나가자 주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거칠게 항의하였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응원 경찰이 총을 쏘았고 젖먹이를 안은 21세 여자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민·관 합동 총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에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166개 단체, 41,211명 동참)가 참여하였고, 제주 출신 경찰관 66명도 동참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경찰과 서북청년단[57] 760명을 제주에 파견하여 1년 동안 2,500명을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1948. 3월에는 조천지서에서 고문당하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등 고문치사 사건 3건이 잇달아 발생해 민심을 더욱 자극하였고, 1948. 4.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350명이 경찰서와 서북청년회 등을 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무장대는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가 적힌 전단을 살포하며 도민들에게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신들의 노선을

57) 성산면 서북청년단: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을 장악하고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은 단체로 알려져 있다. 서북청년단 사무실은 옛 城山東公立國民學校와 인접해 있었으며, 지금도 그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하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경찰과 서청 탄압에 저항하고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투쟁하였다.



▲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명령이 기록된 국무회의록 일부(왼쪽).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박형요의 증언(오른쪽). 사진 및 자료 윤예지

1948. 4. 28일 제주에 주둔하던 제9연대 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에 협상을 체결하여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948. 5. 1일에 우익청년단이 오라리 방화사건을 저질렀고, 김익렬이 우익청년단의 소행임을 밝혀냈지만, 경찰은 무장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군 방첩대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미군정은 5. 3일 무장대를 총공격하라고 경비대에 명령하고 무력에 의한 진압 작전이 개시되었으며, 김익렬이 이에 거세게 반대하므로 5. 6일에 해임되고 말았다.

미군정은 4·3 무장투쟁이 발생하자, 경찰과 우익청년단을 증파하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사태를 진압하려 했으나 쉽사리 수습되지 않았으며, 5·10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198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성사된 반면 제주도 북제주군 갑·을구 2개 선거구에서 투표율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군정은 강력한 진압 작전을 펼치며 6.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독려하였으나 재선거도 실패하였으며, 이로써 제주도는 5·10 단독선거를 거부한 남한의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1948. 11월 중순에서 1949.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해안선 5km 이외 지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의 후원 아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실시했는데 정부군은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였고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 가옥 4만 채를 불태웠다. 이로 인해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25,000~30,000명이 희생되었다.[58]

우리 마을과 제주 4·3사건 1948. 4. 3일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경찰서와 서북청년회를 습격하던 날 밤에 우리 마을에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 일상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를 색출하기 위한 심문이 시작

5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백서(2017)

되었고, 잡히면 고통을 받을 것이고, 피신하면 의심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 피신하여 당장에 받는 고통이라도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날이 갈수록 피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만 갔고, 평소 순진하고 상부상조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불신과 증오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으며, 좌우익의 편파적인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청장년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불안한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고 있었다.

미군정은 5·10선거를 위한 첫 준비 단계로 문맹자를 위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30대~ 60대의 부녀자들을 모아 놓고 각 반별로 동네 사랑방에서 <ㄱ, ㄴ>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교육 대상자의 출석부를 작성해 놓고 출석을 강요하였고, 담당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실적을 올리도록 압력을 가했으므로 형편이 어렵고 고단한 상황이었지만 당국의 지시에 따라 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손자를 데리고 공부방에 나가 <ㄱ, ㄴ>을 깨우치지 못하고서도 개근상이나 우등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1948. 5.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 되었다. 이에 좌익 계열에서는 입산자들과 합세하여 선거 방해 공작을 전개하였는데, 경찰서, 서북 청년단체 사무실 등을 습격하는 등 차츰 과격한 양상으로 띠게 되었다. 선거 당일에 군복을 입고 무장한 사람들이 투표장인 향사를 습격하고 총기를 난사하여 세 명이 희생당했고, 투표함과 투표용지, 향사를 불태워 버려 투표가 무효화 되었다. 그러자 관에서는 본격적인 색출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입산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59]

1948. 11. 6일에 토벌대가 주민들을 수산국민학교에 집결시켜 심문하면서 城山浦西公立國民學校[60]에 재학 중이던 김태봉(당시 15세)을 현장에서 사살하여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강순택씨는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했다.[61]

『그즈음 툭하면 군인들이 마을로 올라와 주민들을 붙잡아 구타했기 때문에 낮엔 들녘에서 숨어 지냈고, 밤에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엔 군인들이 새벽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며칠 전 2구에서 붙잡아 총살한 김태성을 거명하며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태봉이 '우리 형입니다.' 하니 그 자리에서 총살했습니다. 그의 모친도 현장에 있었으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못 했습니다』

이튿날에도 군인들이 마을에 올라왔다. 주민들은 군인들이 시킨 대로 총소리가

59) 水山里誌(1994)
60) 城山浦西公立國民學校: 현재 동남초등학교를 말한다.
61)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1998)

세 번 나자 신속히 집합했다. 전날 황급히 피신했던 사람들도 이날엔 대부분 모였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마구 구타하며, 일일이 취조하면서 소위 도피자 가족을 추려냈다.

며칠 후 무장대가 민보단장의 집을 방화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군인들은 도피자 가족을 성산포 터진 목으로 끌고 가 보복 총살했다. 1948. 11. 17일 벌어진 이 학살극 때 김경학과 그의 처, 딸 2명, 며느리, 손자 등 한집안에서 6명이 숨졌고, 오원보의 모친과 숙모 등 총 13명이 학살되었다.

1948. 11. 20일에 공비 토벌 작전에 지장이 되는 성산면에서는 고성리 쥐영밭,[62] 수산리, 신풍리 총 3개 마을이 해안 마을인 고성, 신양, 오조, 성산 등으로 이주하라는 소개령(疏開令)[63]이 내려졌고, 토벌대들은 2리의 모든 집에 불을 지른 반면 1리는 방화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리 주민들은 대부분 무사히 소개했지만, 2리에서는 토벌대가 총을 쏘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주민들은 황급히 숲과 산으로 도망쳤다. 청년뿐 아니라 온 가족이 피신하기도 했다. 이때 하산 기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이 토벌전 때 대거 희생됐고 남아 있는 가족들은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됐다.

토벌대는 소개령을 내린 지 열흘 만에 1리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다. 대부분 중산간 마을들이 이듬해 봄이 돼서야 복귀를 허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특이한 일이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토벌대가 1리를 불 지르지 않고 주민들을 곧 마을로 돌려보낸 까닭은 수산1리를 토벌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수산1리를 방치해 무장대가 장악한다면 토벌대 주둔지인 성산리와 전선이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토벌대의 지시에 따라 수산리에서는 민보단(民保團)[64]을 조직하여 자체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사태 수습 작전에 지장을 주는 마을 안의 나무를 베어내고 마을 주위에 높이 3m의 성곽을 쌓았으며, 성 밖으로 높이 1.5m의 외성을 쌓아 그 안에는 가시덩굴을 넣어 월성을 막았다. 성곽에 2~3개의 성문을 내어 농사일이나 부락 간 통행에 사용했고, 마을 사람들이 외출하려면 민보단장이 발행하는 통행증이 있어야 성밖 출입을 할 수 있었다. 성밖에서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은 민보단이 감시 보호하였다.

야간에는 민보 단원들이 성의 망루대에서 죽창을 들고 매일 밤 4~5시간씩 보초를

62) 고성리 쥐영밭: 고성리 2,068 일대이다. 동산이 쥐형태로 생겼고 넓은 평원에서 주민들이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3) 소개령(疏開令): 공습,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덜기 위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시설들을 분산 시킨다는 의미이다.

64) 민보단(民保團): 1948년 5·10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협조기관 성격으로 조직되었다. 관할지역 경찰서장이 단원을 실질적으로 인솔하였다.

서면서 경비를 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을에 두 차례의 큰 습격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식량, 옷, 우마를 탈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집을 불태워 버렸다.

1948. 12. 19일에는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했다. 밤 10시께 기습한 무장대는 보초를 서던 5명을 살해했다. 이어 토벌대 지원 활동을 하던 청년들의 집을 덮쳐 그 가족들 11명을 학살했다. 이때 가족 4명을 잃은 김한석 씨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65]

『그들은 나를 주목한 것입니다. 당시 나는 각 마을에서 5명씩 차출해 만든 의용대에 뽑혀 성산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는 겁니다. 군경 토벌대와 의용대 합동으로 약 1백여 명이 나섰지요. 그런데 집합과 출동에 꽤 시간이 걸려 날이 샐 무렵에야 수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땐 이미 폭도들이 식량까지 챙겨 떠난 후였지요. 누군가 알려줘 급히 집에 가봤더니 부모님과 제수, 조카가 처참하게 숨져 있었습니다.』

9연대 시절,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무장대의 강압에 못 이겨 백지 날인이나 도로 차단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시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수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자수했고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러나 뒤이어 등장한 서북청년단은 이를 근거로 주민들을 학살했다. 당시 우리 마을은 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사태 수습을 위한 1개 소대 병력이 주둔하게 되었다. 특히 충남중대에서 파견된 경찰 1개 소대(소대장 崔隆陽(최융양))는 여느 부대와는 달리 마을의 민심을 수습해 가면서 청장년들과 힘을 합하여 토벌작전과 방어작전 등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최융양은 민가[66]를 빌어 본부를 정하고, 울타리를 3m 높이로 축조하고 민보단 본부까지 겸하게 하였다. 각 분대는 동네별로 여유가 있는 집을 빌려 분견(分遣)[67] 활동을 하였는데, 민보단 특공대[68]와 합동으로 무장대 토벌 작전과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여 마을주민들을 감동케 하였다. 서북청년단이 워낙 악랄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충남 부대가 고마웠고, 이들을 위해 흔쾌히 기르던 소를 잡았다고 한다.

충남중대제일소대(忠南中隊第一小隊) 부대가 1949년 말에 철수하자 그 공을 기리기

---

65)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1998)

66) 민가: 충남부대 주둔당시 본부로 사용했던 강승보의 집이다. 수산리 611-1 일대이며 부대 울타리로 사용했던 흔적이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다. 4·3유적(제주도 제주4·3연구소, 2020) 보고서에는 충남부대 본부를 성산읍 수산서남로 24-3(수산리 633-2번지)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장소는 고영보 소유 토지로 충남부대 본부와는 상관이 없는 장소이다.

67) 분견(分遣): 주 작전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전

68) 민보단특공대: 젊은 청년들로 편성된 조직, 죽창 등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졌었다.

위해 수산진성 서문지(西門址) 쪽에 충남중대제일소대장경위최융양청덕비 忠南中隊第一小隊長警衛崔隆陽淸德碑를 명문과 함께 세웠다.

1949년 초부터 약 1년 동안 주둔했던 충남중대가 철수한 후에 성산포 경찰서에서 수산리에 파출소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개인 집인 강승보 댁에 파출소를 두었다가 소실된 옛 향사를 초가(草家)로 복구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파출소장 장성순 순경이 부락의 동정을 살펴보니, 성곽 밖에 집이 있는데도 성 밖이라는 이유 때문에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성곽을 확장하기로 하고 상부에 건의하였으나 뜻은 좋으나 힘겨운 일이라며 만류하였지만 강행하기로 하였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청장년들이 군에 입대한 때였으므로 노약자와 젊은 여성들의 눈물겨운 3개월여 간의 노력으로 성곽 확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성 밖에 집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주민들이 파출소장의 노고를 칭송하였다.



▲ 충남부대 주둔당시 본부로 사용했던 장소의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석축(당시 강승보의 집 수산리 611-1, 현재는 강재길 소유의 집)



▲ 4·3당시 마을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외곽에 쌓았던 석축(石築)위치와 마을 주민이 통행했던 출입문의 대략적인 위치이다, 이 그림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수산리 269-2 일대에 있었던 출입문은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남정문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復舊記念卑 복구기념비

1948. 11. 20일에 공비 토벌 작전에 지장이 되는 우리마을을 비롯해 모두 3개 마을이 해안 마을로 이주하라는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졌다가, 1954년 마을 복구사업이 이루어졌을 당시 성산면장 오성남(吳成南)과 성산경철서장 현병두(玄柄斗)의 주선으로 마을이 재건됨을 칭송한 비석이다.

마을복구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수산2리는 둘레 580미터의 성안에 초가로 움막을 짓고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치안이 회복되면서 성밖의 자기 땅에 새로 집을 짓기

시작했으며 미처 이주하지 못했던 주민이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오면서 마을이 점점 커져 갔다.

성산포 터진목 학살 사건 4·3사건 중에서 수산주민에게 가장 큰 피해와 아픔을 주고, 갈등을 조장한 것은 성산포 터진목 집단 학살 사건[69]이다.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된 특별 중대는 성산국민학교에 주둔하며, 학교 앞 담장 너머에 있던 주정 공장을 유치장으로 사용하며 양민을 수감시켜 혹독한 고문을 가한 뒤 터진목으로 끌고 가 즉결 처형하였다. 성산 터진목에서 학살된 213명(성산 196명, 구좌 17명) 중 55명(성산면 희생자의 28%)이 수산주민이었고, 이는 수산리 4·3사건 관련 희생자 134명의 41%를 차지한다.

▼ 성산 터진목에서 수산주민이 학살된 일자와 인원

학살일	희생자 수			학살일	희생자 수		
	남	여	계		남	여	계
1948.11.17.	5	8	13	1949. 1.12.	2		2
1948.11.18.	1		1	1949. 1.15.	1		1
1948.11.23.	1		1	1949. 1.18.	1		1
1948.11.27.	1	2	3	1949. 2. 1.	7	6	13
1948.11.28.	2	1	3	1949. 2.13.	1		1
1948.11.29.	4		4	1949. 2.15.	3		3
1948.12. 8.	4		4	1949. 6.11.		1	1
1949. 1. 3.	1		1	날짜 미상	1		1
1949. 1. 9.	2		2	계	37	18	55

특별 중대원들은 도피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행을 저질렀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망각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1948. 11. 17일에 13명을 학살한 이유는 당일 수산리 민보 단장의 집을 무장대가 방화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증언이 4·3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터진목에서의 학살 사유는 남로당 탈퇴 성명서를 낸 자, 남편과 아들을 일본으로 밀항시킨 자, 동남초 등사판 분실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교장, 교사, 교

69) 성산포 터진 목 집단 학살 사건: 1948.10.27.~1949.6.11. 사이에, 총 31회 걸쳐 성산면, 구좌면 주민 213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우리마을 주민은 당시 55명이 학살당하였다.

직원, 성산면 주민 21명 총살), 이승만 대통령 초상 강매 거부에 대한 보복(33명 학살), 무장대에 협조한 자, 도피자 가족 등으로 자의적 판단하에 만행을 저질러 수산리뿐만 아니라 성산면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성산 터진목에 제주 4·3 성산읍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예비검속 1950. 6.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치안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 아래, 과거 좌익 또는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예비 검속하여 집단수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예비 검속자 중 일부는 송악산 섯알오름 탄약고 터,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었으며, 산지항 인근 바다에 총 566명이 수장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예비검속과 관련된 사람은 1개월 구속 후 풀려난 자 1명, 구속수감 후 행방불명된 자 2명이다.[70]

같은 해 7. 8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경찰·검찰·법원 조직 등은 모두 군의 관할로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예비검속을 주관하게 되었다. 당시 예비검속된 사람들 가운데는 좌익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4·3사건 당시 입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으며 사적 감정에 의한 불법 구속, 악질분자의 중상모략으로 인한 부당 구속 사례도 많았다.[71]

4·3관련 희생자 수산리의 4·3 관련 희생자는 2021. 3. 10일 기준으로 134명(남 92, 여 42)이며, 이중 사망자 104명(토벌대에 의한 사망 83명, 무장대에 의한 사망 21명), 행방불명자 20명, 유해로 발굴된 자 5명, 수형자 3명, 후유장애자 2명이고, 무장대의 마을 습격 시 피살된 11명은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 제단 희생자 각명비(2009. 4. 3일 설치)에는 한 맺힌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후세대에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4·3 희생자로 결정된 14,256명의 성명, 성별, 당시 연령, 사망일을 새겨 놓았는데,[72] 그중 각명비에 이름이 새겨진 수산리 희생자 130명과 미등재된 4명의 이름, 성별, 나이, 사망 원인 등을 여기에 수록한다.

---

70) 제주 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71) 제주 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72) 제주 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 4·3사건 관련 희생자 명단

연도별	희생자 이름 및 내용(이름, 성별, 나이, 사망원인 등)
1948년	▲ 강기하(남, 25, 마을 보초 경계 중 무장대에게 피살, 보훈 대상자) ▲ 강병현(남, 20) ▲ 강봉현(남, 29) ▲ 강성현(여, 38) ▲ 강애선(여, 14, 무장대에 피살) ▲ 강인칠(여, 33, 무장대에 피살) ▲ 강춘선(여, 56,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강태형(남, 33,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강평우(남, 2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강희현의 자(여, 4) ▲ 고경채(남, 53) ▲ 고두현(남, 2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두환(남, 2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봉옥(여, 2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부권(남, 34) ▲ 고앵제(여, 68,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용구(남, 62) ▲ 고용언(남,81, 무장대 마을 습격 피살, 보훈 대상자) ▲ 고을송(남, 34) 고창수(남, 31,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처용(남, 33,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태행(남, 25, 마을 보초 경계 중 무장대에게 피살, 보훈 대상자) ▲ 김갑연(남, 51,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평권(남, 21,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김경옥(남, 1, 무장대에 피살, 토벌대 지원활동 가족) ▲ 김경학(남, 4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처, 딸 2명, 며느리, 손자 한집안에서 6명 학살) ▲ 김계림(여, 66, 무장대에 피살, 토벌대 지원활동 가족) ▲ 김관수(남, 21, 행불) ▲ 김관수의 자(여, 4, 행불) ▲ 김관익(남, 28, 행불) ▲ 김달민(남, 62, 무장대에 피살, 토벌대 지원활동 가족) ▲ 김두익(여, 17 행불) ▲ 김묘생(여, 19, 터진목 집단 학살 토벌대지원활동 가족) 김비익(여, 19, 터진목 집단 학살) ▲ 김응삼의 자(남, 2) ▲ 김태근(남,22, 무장대 마을 습격 피살, 보훈 대상자) ▲ 김태봉(남, 15, 동남초 재학 중 수산초에서 토벌대에 의해 모친이 보는 앞에서 총살됨) ▲ 김태성(남, 19, 토벌대에 의해 총살, 김태봉의 형) ▲ 김태현(남, 39, 무장대 마을 습격 피살, 보훈 대상자) ▲ 부신현(여, 41, 무장대에 피살, 토벌대 지원활동 가족) ▲ 양춘삼(여, 50,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경모(남, 3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계춘(여, 36,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능표(남, 3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달년(남, 20, 마을 보초 경계 중 무장대에게 피살, 보훈 대상자) ▲ 오도훈(남, 34,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두화(남, 20) ▲ 오정규(남, 27, 마을 보초 경계 중 무장대에게 피살, 보훈 대상자) ▲ 오태경(남, 21,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태삼(여, 47) 오호여(여, 58) ▲ 정애부(여, 72, 무장대에 피살, 토벌대 지원활동 가족) ▲ 정영춘(여, 26,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조경룡(남, 16, 무장대에 피살, 토벌대 지원활동 가족) ▲ 조재춘(남, 28, 마을 보초 경계 중 무장대에 피살, 보훈 대상자) ▲ 조태흡(남, 52, 마을 보초 경계 중 무장대에 피살, 보훈 대상자) ▲ 한경선(여, 55, 행불) 한백흥(남,24,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인봉(남, 48, 마을 보초 경계 중 무장대에게 피살, 보훈 대상자) ▲ 한태부(남, 19,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태영(남, 16,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창화(여, 20, 김경학의 며느리,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창화의 자(남, 2, 김경학의 손자,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김갑생(여, 3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연도별	희생자 이름 및 내용(이름, 성별, 나이, 사망원인 등)
1949년	▲ 강보은(여, 88) ▲ 강서봉(남, 3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강신권(남, 39,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강종하(남, 3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경두(남, 25, 행불) ▲ 고국지(여, 10,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기명(남, 63, 행불) ▲ 고대규(남, 26, 행불) ▲ 고대휴(남, 20,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두석(남, 25, 제주공항활주로에서 유해발굴) ▲ 고두정의 자(여, 8) ▲ 고봉일(여, 57,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순덕(여, 3,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고순현(여, 35) ▲ 고창송(여, 21) 고창오(남, 38) ▲ 고태헌(남, 2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김봉규(남, 2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김순금(여, 88,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김영옥(여, 7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김태욱(남, 39,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김해선(여, 61) ▲ 부란수(여, 66,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양석보(남, 34, 행불) ▲ 오경조(남, 64) ▲ 오관형(남, 30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에서 유해발굴) ▲ 오남수(남, 17,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남윤(남, 28, 마포형무소 수감) ▲ 오남학(남, 21, 마포형무소 수감) ▲ 오달송(남, 32,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동남초 등사판 분실 관련) ▲ 오도균의 자(남, 5) ▲ 오도화(여, 29, 행불) ▲ 오명중(남, 57) ▲ 오문길(여, 27,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성수(남, 29,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에서 유해발굴) ▲ 오승조(남, 78,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오신길(여, 50) ▲ 오완봉(남, 69) ▲ 오원보(남, 22, 광주 형무소 수감, 공소 기각, 출소) ▲ 오유생(여, 45) ▲ 오윤표(남, 26,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에서 유해발굴, 수산초 강사) ▲ 오찬국(남, 79) ▲ 오풍차량(남, 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이용현(여, 29,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정두삼(여, 3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만흥(남, 26,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상보(남, 33,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석도(남, 21,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인옥(남, 27,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한태복(남, 22,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에서 유해발굴) ▲ 현순천(남, 63,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 현원길(남, 20) ▲ 정영춘의 자(여, 1) ▲ 김갑생(여, 35, 터진목 집단 학살사건)
1950년	▲ 고두정(남, 24) ▲ 고영환(남, 24, 행불) ▲ 고정용(남, 24, 행불, 마포형무소 수감) ▲ 고창하 (남, 37) ▲ 고태권(남, 23, 마포 형무소 수감, 수산초 강사) ▲ 김응삼(남, 30, 행불) ▲ 김임출(여, 49) ▲ 오도균(남, 34, 행불) ▲ 오방순(남, 27, 행불) ▲ 오인표(남, 25, 행불) ▲ 한원길(남, 26, 행불)
1951년	▲ 오남곤(남, 26, 2011. 1. 26. 추가 결정 희생자)
1954년	▲ 고창현(남, 28)
1962년	▲ 김만생(여, 81, 터진목 집단 학살로 후유장애)
1968년	▲ 오도흠(남, 58, 2011. 1. 26. 추가 결정 희생자)
1975년	▲ 고두선(남, 52)

연좌제 피해[73] 근대법이 확립되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단지 가족원이나 근친 중에서 누군가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당사자와 함께 그 부모, 처자, 형제를 비롯한 친족에게까지 형벌에 가해지는 경우를 일컬어 연좌제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갑오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철폐되었으나 해방 후 남북 대립 상황 속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특이자를 걸러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사라지지 않고 공공연히 실시되어왔다. 주로 신원조회를 통한 신분상의 불이익과 감시를 통해 이루어졌던 연좌제는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연좌제의 적용 대상은 4·3사건 관련자의 가족,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 월북자나 부역자 가족, 국가 보안법 등 간첩 혐의 연루자의 가족 등이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연좌제를 통해 피해를 본, 분단 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좌제 당사자들은 공무원 시험 응시, 사관학교 입학, 국·공기업·사기업 취직 및 승진,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제한(비자 미발급 등),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선원수첩 발급, 일상생활에서의 감시, 각종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우리 마을에 고위 공직자자 드물었던 까닭은 4·3사건으로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연좌제로 공직 진출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적 피해[74] 4·3사건으로 성산면에서 123가구가 소실되었고, 도 전체에서 소 17,860마리, 말 6,009마리, 돼지 22,989마리, 기타 25,413마리가 피해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 마을별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토벌대가 수산2리 가옥을 전부 불태워 버렸고, 5·10선거 당시 향사(당시 수산 1구 향사, 초등학교 2학년 교실로 사용)가 소실되어, 학교 기물, 학교 기록물(교직원 명부, 생활기록부, 기타 학교 행정문서)이 없어졌고, 민보 단장의 집이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4.3의 완전해결[75] 2003년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실규명, 명예회복, 국가사과, 국가 추념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8년이 지난 2021. 2. 26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위자료 등 희생자 지원방안 마련을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명예회복, 상처 치유 등을 담았다.

---

73)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15)
74) 제주 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75) 뉴제주일보(2021. 3. 2.)

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은 4·3 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고, 일반 재판 수형인은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방불명 희생자 관련 법률관계 정리를 위한 실종선고 청구 및 인지 청구 특례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산 4·3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위자료 지원은 4·3 발생 73년 만에 희생자에 대한 금전적 배·보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을 위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4·3 희생자 14,533명에 대한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6개월간 용역을 통해 배·보상 지급 기준·방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정부의 2022년 예산안 반영이 진행돼 내년에 실제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4·3사건의 완전해결을 위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명(正名,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름 정하기)과 행불인 조사, 유해발굴, 신원확인, 미국의 책임 규명, 4·3 왜곡 재발 방지, 4·3 정신 및 가치에 대한 교육과 후세 전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76]

4·3사건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아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950. 6. 25일 북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애국심에 불타는 수산 1·2리 청년 20여 명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으며, 같은 해 9. 1일에는 만 17세 이상 35세 미만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육군으로 징집되었다. 10. 1일에도 20여 명이 징집되어 각 전선에 분산 배치되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싸웠다. 우리 마을에서는 80여 명이 참전하여, 21명이 전사하였고. 5명이 전상(戰傷) 당했으며 50여 명이 무사 귀환하였다.

1956년 수산리 재향군인회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21명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그들의 충정을 후세에 알리고자 충혼비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들의 기

76) 6·25전쟁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수산1리 참전 용사 고춘권, 2리 참전 용사 양명보, 유족이신 양경림, 수산리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오남종, 고순현, 월남전 참전 용사이신 고문칠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두며, 기타에 수록한 것은 참전 용사들의 기억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약간의 오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억도 희미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선대의 고귀한 업적을 오래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이 후대의 임무라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전사자, 국가유공자(상이군인, 무공수훈자), 기타로 분류하여 그들의 성명과 자녀(근친)들의 성명을 기록한다. 고마움을 고이 간직하고, 아픔을 공유하며, 상부상조하는 수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사자 참전하여 전사(戰死)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모두 21명이며, 충혼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사자는 참전 용사의 약 25%에 달한다.

성명	자녀(근친)	성명	자녀(근친)
고태호	고태주의 형	양인권	양경림의 부
강순봉	강일봉(부산거주)의 제	김태경	윤정, 윤견, 윤현, 윤관의 백부
강문범	강권일의 양부	고갑출	오인수의 장인
강천욱	강봉욱의 형	한봉효	한봉조의 제
오정휴	성보, 은보, 중보의 숙부	한순범	한경대의 친척
강수택	강기정의 양부	강성무	강승환(신산거주)의 부
강승구	강정윤의 양부	고천중	고성자의 숙부
고몽량	고중형의 부	강호현	정협, 인협의 부
고창보	고정권의 부	강계택	강석조의 백부
오남곤	오성옥의 부	조맹춘	조의봉의 양부
한경하	한경대의 형		

국가유공자(상이군인) 참전하여 전상을 당한 후, 1960년 후반에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 등급을 받아 보훈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로 수산 1·2리에 5명이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명	자녀(근친)	성명	자녀(근친)
고상용	두봉, 창봉, 오봉, 석봉	오문학	원일, 원종
한태흥	명립, 승립	고영규	광수, 길수
강창익	대진, 대부, 대수		

국가유공자(무공수훈, 보훈)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 백마고지 전투, 도솔산 전투, 서울 탈환 수복 작전, 지리산 지구 공비 토벌 작전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과, 이외에도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다.

성명	자녀(근친)	성명	자녀(근친)
김태삼	윤수	김태표	윤정, 윤견, 윤현, 윤관
강봉건	승일	김한석	봉구, 봉열, 봉수, 봉호
김봉옥	문도, 문식	고춘권	영일, 영삼, 영섭
강길호	희삼, 희규	오성훈	도근, 도일, 도화
고태순	승백	오석희	인범, 현범, 홍범
오기준	용원, 용근, 용만	김두표	석범, 경범
강봉선	승국, 승추	오만표	상훈
강승오	정덕, 정섭, 정철	양명보	만길, 만배
고순언	민권, 윤권	강성규	문수, 문환
고학권	대관, 대승	김영기	문규
고학선	문칠, 문주, 문섭, 문종	강정원	문호, 문유
김봉양	문신, 문권		

기타 참전하여 전상을 당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여 상이 등급을 못 받은 사람, 타 지역 거주로 수훈 여부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대상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 혜택이 미미하여 자손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성명	자녀(근친)	성명	자녀(근친)	성명	자녀(근친)
오두전	장평, 장원, 장순	오석춘	희범, 용범, 창범	고성은	경호, 철호
양경주	신원, 정원	고시용	원복, 원종	오태화	원국
강경협	용국, 명철	고태식	인철	강봉진	강봉국의 형
고창권	원일	고태완	원백, 두백, 관백	오경호	관용, 관준
강춘식	현우, 현숙, 현율	고삼용	재봉, 대봉	고재섭	인배
고일권	희문, 희영	강인규	문수, 문환의 삼촌	한일흥	석주, 석찬
강희봉	동익, 동우	강정규	문복	고성후	정보, 관보, 권보
오석호	성택, 성립	오일준	오찬율의 형	고을출	인덕, 인지
김경훈	영관, 영주	오도철	대일, 관일	고순석	보진, 보삼, 창진
고진형	은백	강봉협	재경	고인권	영석
고세진	인환, 명환, 택환				

여기에 수록된 분들은 제주 4·3사건과 6·25전쟁 당시에 청장년이었으므로 고향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4·3사건에 시달리고, 전쟁터에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아픔에 시달리고, 전쟁터에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아픔을 가슴 속에 묻어 둔 채, 가족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셨다. 이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사하며,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고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5. 11.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270,000㎡(1,594,175평)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201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예정지

수산1리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15. 11. 10일 제주 제2공항 입지 및 건설방안 발표이후 수산1리 마을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같은 해인 11. 21일 마을 총회에서 오찬율 위원장을 중심으로 3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을 이장이 맡았으며 오찬율, 김석범, 오만탁, 김문식 위원장 등 4명이 중임을 맡았으며, 수산1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한다.

○ 2015년 ▲ 11. 21. 제2공항 비상대책위원회구성(마을 총회에서 오찬율 이장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30명의 비상대책위원 구성) ▲ 12. 1. 대수산봉 항의 집회, 도민의방 기자회견 및 제주공항 소음 피해지역 견학

○ 2016년 ▲ 1. 6. 리민 참여 독려, 설명회지지 활동전개 ▲ 3. 28. 국회의원 후보 질의서 발송 ▲ 5. 28. 결의문 채택 ▲ 6. 14. 탄원서 발송 ▲ 8. 10. 제2공항 부실용역 설명회(오신범 위원)

○ 2017년 ▲ 4. 23. 수산1리 촛불집회

○ 2018년 ▲ 1. 30. 수산1리 촛불집회 ▲ 5. 30. 수산1리 촛불집회

○ 2019년 ▲4. 5.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 촛불집회 ▲5. 14. 항공기 소음이 우리 마을에 미치는 영향(소음 간접체험 시연), ADPI보고서 관련 합동기자회견
○ 2020년 ▲11. 1. 한마음잔치 반대위 결의대회 ▲12. 21. 원형로타리 피켓시위
○ 2021년 ▲1. 25. 제2공항 반대 피켓시위 ▲5. 20.: 마을 촛불집회

제주도민 여론조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이 쏟아지자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토론회를 거친 끝에 주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 2. 15일~17일까지 3일간 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의 표본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엠브레인퍼블릭 찬성 43.8%, 반대 51.1%와 한국갤럽 찬성 44.1%, 반대 47%로 2개 조사기관 모두 반대가 높게 나타나 제2공항 추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산읍 수산1리 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언했다. (2015.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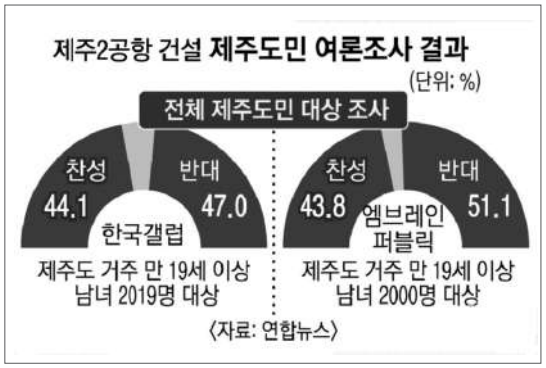
전략환경영향 평가

국토부가 2019.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2021. 7. 20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환경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를 이유로 반려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제2공항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제2공항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마을 주택 벽화

입지선정에서 최종반려까지



▲ 2021. 2월에 실시한 제2공항 건설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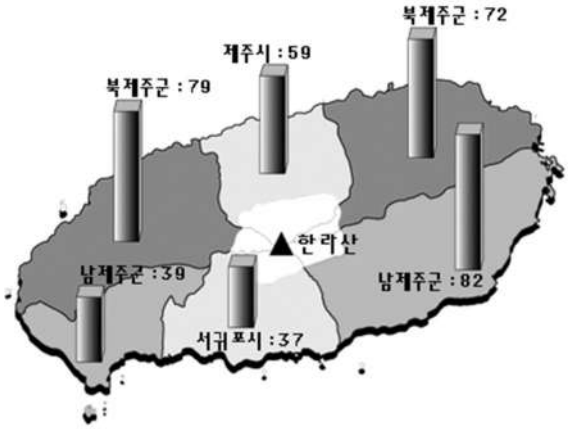
▲ 1990. 4.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2007. 12.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제주 신공항 개발 사업 공약 채택 ▲ 2014. 10.~2015. 11. 국토교통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2015. 11. 10.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최종보고회,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방안 발표 ▲ 2016. 1. 7.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주민설명회 파행, 가칭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 구성 ▲ 2016. 7. 25.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 2017. 3. 9.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발언 제주 제2공항 등 4개 후보지 검토 언급 ▲ 2017. 4. 18.: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공약 발표 ▲ 2017. 7. 20.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8. 6. 28.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 12. 19.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 돌입 ▲ 2019. 9. 23.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 ▲ 2019. 10. 31. 환경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 2019. 12. 10. 국회, 356억원 규모 제주 제2공항 예산안 통과 ▲ 2020. 1. 8. 정부 제6차 국토종합계획 제주 제2공항·신항만 건설계획 반영 ▲ 2021. 2. 15.~17.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시행(도내 9개 언론사 컨소시엄) ▲ 2021. 2. 18.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2021. 6. 11.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 2021. 7. 20.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반려 결정

제 3 장
마을과 자연

제1절 오름과 천연동굴

오름 <오름>은 <오르다>의 명사형으로, 독립된 산 또는 봉우리를 이르는 제주말이다. 한라산 자락에 산재하는 기생화산들을 일컫는다. 오름의 이름은 주로 <○○산>이나 <○○악> 또는 <○○봉>으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오름은 모두 368개이다. 이중 성산읍에는 22개의 오름이 있는데, 말굽형 9개, 원추형 6개, 원형 5개, 복합형 2개가 있다. 우리 마을에도 대왕산을 비롯해 5개의 오름이 있다. 대왕산의 경우는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산으로서 옛 선조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오면서 이름 또한 위엄이 있게 느껴진다. <궁대오름> 〈뒤굽은이〉 <남거봉> <돌미오름> 등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친근하고, 소박한 이름이다. 오름을 형태적으로 분류하면 대왕산과 뒤굽은이는 말굽형, 궁대오름은 복합형, 남거봉은 원형 오름에 속한다.



▲ 제주의 오름 분포현황(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8)

오름(山岳, 산악)[77]의 본디 이름은 단순히 그 땅을 일컫는 이름뿐

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언어이다. 그러므로 땅 이름에는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은 물론 세계관, 인생관이 들어 있다.

▼ 우리마을에 분포하는 오름

이 름	다른 이름	위치
대왕산	웡미, 왕뫼, 왱미, 大王山, 왕이미, 왕이메, 왕이산(王伊山), 왕이악(旺伊岳)	수산리 1,431
남거봉	木辺岳(남ᄀᆞ오롬), 낭끼오름, 남케오름, 목화악(木花岳), 목변악(木邊岳), 남거봉(南擧峰)	수산리 3,954
궁대오름	궁대악, 궁대악(弓大岳, 弓帶岳)	수산리 4,711-8
뒤굽은이	九分岳(굽은오름), 후곡악(後曲岳), 후궁악(後弓岳), 뒤곱은이	수산리 4,504
돌리미오름	돌미, 돌이미(乭伊尾), 선돌(立石)	수산리 4,535



77) 오름: 〈오롬〉은 山이나 岳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오늘날 〈오름〉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古老들은 대부분 〈오롬〉을 쓰고 있다(현명효, 1985). 옛 문헌인 『남사록(권1)』에 사투리로 〈岳〉은 〈오롬, 吾老音〉)이라 한다(俚語....以岳 爲吾老音). 『탐라지』에는 〈岳〉을 〈오롬〉 오름(元音)이라 한다(伊岳 爲元音)고 하여 이른 시기부터 〈岳〉의 뜻으로 〈오롬, 오롬, 오름〉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대왕산

■ **욍미, 왕뫼, 왱미, 大王山, 왕이미, 왕이메, 왕이산(王伊山), 왕이악(旺伊岳)**



▲ 멀리서 바라본 대왕산의 모습

- 위치: 수산리 1,431 일대이다.
- 표고: 157.6m, 비고: 83m, 둘레: 1,821m, 저경: 606m
- 면적: 258,195㎡
- 형태: 말굽형 화구
- 오름 이름의 유래

대왕산의 유래는 몇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양(羊)이 누운 모양과 같다고 해서 와양뫼(臥羊岳, 와양악)라고도 불렸다. 대왕산 서쪽에 임금 王자 모양의 지형이 있어서 그 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왕산이라고도 했다. 일설에는 1300년(충렬왕 26)에 원나라 황태후 성종의 모후(母后)인 유성황후(裕聖皇后)[78]가 수산평에 말과 소를 방목하고,[79] 감시하기 위하여 대왕산에 조감대(眺監臺)를 설치하고 감시소를 두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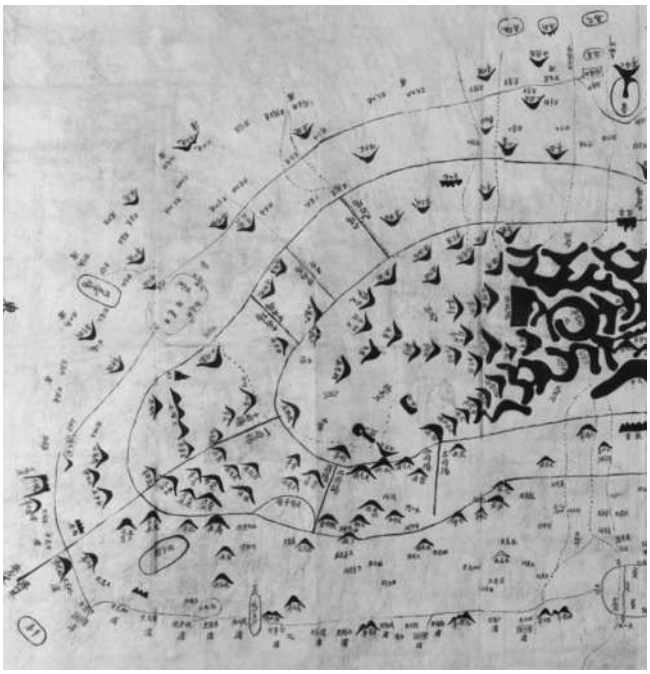
78) 水山里誌(1994) 본문에 〈기황후, 奇皇后〉,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南萬里編纂本, 1989) 水山鎭條에도 〈德庚子元奇皇后遺塔羅赤獻牛馬駝驢羊來放于, 1300년에 기황후가 타라치를 파견해 소, 말, 양, 낙타, 나귀, 양을 방목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교육박물관자료집(하, 2007)에는 이때에는 〈기황후〉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이며, 당시 원나라 황태후는 성종의 모후(母后)인 유성황후(裕聖皇后)이다. 『고려사(高麗史)』 전라도 탐라현조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제주목조에는 〈황태후, 皇太后〉로 표기 되어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여 수록한다.

79) 高麗史(世家 卷 第二十八, 忠烈王 2, 1276)

연고로 자그마한 봉(峯)을 산(山)자를 붙여 대왕산이라 호칭하게 되었다고도 하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또 하나의 유래는 수산리 근처에 〈王〉자 모양의 형국을 형성하여 오름 사면까지 연결되어 있다 하여 〈왕뫼〉 〈왕메〉 〈왱미〉라고 부른다.

■ 오름 이름의 어원

대왕산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기되는데 제주고지도인 『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 1899)』에는 〈旺伊岳〉 『제주도도 濟州島圖』에는 〈王伊山〉 『제주관광안내도 濟州道觀光案內圖, 1958)』에는 〈大王山〉으로 표기하였으며, 소왕산은 『제주지도 濟州地圖(제주군읍지 濟州郡邑誌, 1899)』에 〈小旺伊〉로 표기되었다.[80]



▲ 濟州地圖(濟州郡邑誌,1899년)에 지금의 大王山, 小王山을 각각 〈旺伊岳〉, 〈小旺伊〉로 표기하고 있다.

『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에는 〈大王山〉, 주위 묘 비석에는 〈王尾〉 〈大王山〉 〈大旺山〉 〈小王山〉 〈小旺山〉 〈小王伊山〉, 오늘날의 지도에 〈大王山〉으로 표기하였다. 〈王伊, 旺伊〉는 〈왕이〉의 표기인데, 〈왕의〉의 뜻으로 보인다.[81]

■ 오름의 특징

오름 어원에서 보듯이 대왕산은 우리 마을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오름으로 인식 되어왔다. 수산1리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오름으로, 남쪽 경사면으로 구불구불한

80)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제주고지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20)

81) 王은 〈왕〉의 훈독자 표기,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山은 〈뫼〉의 제주도 방언 〈미〉 또는 〈메〉의 훈독자 표기이다. 王伊山은 〈왕이메〉의 표기, 〈旺伊岳〉은 〈왕이미〉 〈의〉 〈미〉 〈山〉을 岳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小旺伊〉는 〈족은왕이메〉의 표기이다. 〈大王山〉은 〈큰왕이메〉라는 뜻의 한자 표기, 〈小王山〉은 〈족은왕이메〉라는 한자 표기로, 오늘날에는 이 이름으로 굳어졌다. 〈왕이메〉는 산의 형세가 王의 모양으로 생겼다는 데서, 또는 근처에 王자 모양의 형국이 있다는 데서 불려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이 설이 사실이라면 〈왕이메〉의 〈이〉는 속격 〈의〉의 변음일 가능성이 있다. 곧 〈왕의 산〉이라는 뜻이다.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오창명, 1998)

숲길이 나 있고, 공동묘지가 있다. 산등성이가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동쪽 경사면으로 뻗어 내린 등성이는 오름 동쪽 끝에서 부리를 이루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를 <왕뫼 동끝>이라 부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소나무가 없고 대부분 잔디로 이루어졌었다. 그 덕에 마을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남쪽 잔디밭에서 하였고, 학생들이 매년 소풍을 갔던 대표적인 장소이다. 특히 굼부리 안에는 묘(墓)가 여러 개가 있어 숨은 보물찾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대왕산은 제주도 동녘 해안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름이다. 2013년에 기존 탐방로 일부 구간이 경사가 심해 탐방에 어려움이 있어 경사가 완만한 우회로를 정비,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의 탐방로를 조성했다. 오름의 탐방코스는 입구에서 굼부리 입구까지 440m, 굼부리 둘레 1,000m로 왕복 40여 분이 소요된다.







❶ 대왕산에 있는 큰 바위
(성산읍역사문화지, 2010)
❷ 방화 감시초소
❸ 등산로 입구

남거봉

■ **木辺岳(남곳오롬), 낭끼오름, 남케오름, 목화악(木花岳), 목변악(木邊岳), 남거봉(南擧峰)**



▲ 남거봉의 모습

■ 위치: 수산리 3,954 일대이다.
■ 표고: 185.1m, 비고: 40m, 둘레: 1,605m, 저경: 433m
■ 면적: 82,601㎡
■ 형태: 원형 화구
■ 오름 이름의 유래

수산리 남쪽 높은 <믓르>[82]에 봉우리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낭끼>의 <낭>은 나무, <끼>는 어떤 변두리를 뜻하는 말로 <낭끼>는 나무들이 서 있는 변두리라고 볼 수 있다.

■ 오름 이름의 어원

수산리에 있는 <남거봉>은 제주고지도인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해동지도 海東地圖)』에는 <木邊岳(목변악)> 『제주삼현도 1 濟州三縣圖 1(해동지도 海東地圖)』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와 『제주도도 濟州島圖』에는 <木过岳(목과악)>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었다.[83]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에는 <南花岳(남화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에는 <南花岳(남화악), 남게오름>, 주변의 묘 비석에는 <南擧峯(남거봉),[84] 南

82) 믓르: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 〈마루〉의 제주방언이다.
83)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제주고지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20)
84) 峯(봉우리 봉): 峯과 峰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거봉 남거악 목화봉 목화악 남화악 남변악 목변악
巨峯, 南擧岳, 木花峰, 木花岳, 南花岳, 南邊岳, 木邊岳>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늘날의 지도에는 <南擧峯>으로 표기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낭끼오롬, 남케오롬, 낭곳오름>이라고 부른다.[85]

■ 오름의 특징

<남거봉>은 산체가 남쪽에서 보면 사다리꼴을 띄고, 서쪽에서 보면 산머리가 원뿔꼴의 형체를 띄면서 산등성이가 동으로 길게 뻗어 있다. 북동쪽 기슭에는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침식으로 인해 형체가 뚜렷하지 않으나 둥그렇고 얕게 패어있는 원형 분화구 흔적이 남아있다. 바깥쪽으로는 언덕으로 둘러져 있고, 남사면에 조림된 곰솔나무가 줄을 지어 숲을 이루고 화구안에는 초지가 조성되어 있다.



▲ 濟州三縣圖 1(海東地圖, 18세기)에는 지금의 남거봉을 〈木过岳〉으로 표기하고 있다.

오름의 탐방코스는 금백조로를 가다보면 성산읍 수산리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약 2km 지점에 동서로 길게 누워 있는 오름이다. 길옆으로 큰 새왓[86]이 보이고 바로 붙어서 나지막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오름이 보인다. <수산한못>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왕복 3km 정도로서 30분 정도 소요된다.

85) 木은 〈나모, 낡>나무〉의 제주도 방언이다. 〈남, 낭〉의 훈독자 표기이다. 南은 〈남(木)〉의 음가자 표기이다. 过과 邊은 〈곶(邊 곳 변 又邊〉의 훈가자 표기이다. 花는 〈곶(花 곳 화〉의 훈가자 표기이다. 擧는〈곶, 곳〉에서 〈ㅅ〉이 탈락한 유사음 〈거〉의 음가자 표기이다. 木过岳은 〈남곶오롬, 낭곶오롬〉의 표기이다. 〈남깃, 낭곶〉은 〈남곶〉, 곧 〈나무숲〉이 뜻이다. 木花/南花는 〈남곶〉의 유사음 〈남곳·남곶〉의 표기이다. 〈남곶〉에서 〈ㅅ〉이 탈락한 유사음 〈남거〉의 표기이다. 오늘날은 南擧峰으로 표기되고 있다.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오창명, 1998)

86) 새왓: 새〈茅, 모〉가 있는 밭이다. 즉 띠(茅, 모)가 있는 밭을 〈새왓〉이라 한다.

궁대오름

■ **궁대악, 弓大岳, 弓帶岳**



▲ 서쪽에서 바라본 궁대오름의 모습

■ 위치: 성산읍 수산리 4,711-8 일대이다.
■ 표고: 238.8m, 비고: 54m, 둘레: 1,858m, 저경: 625m
■ 면적: 209,701㎡
■ 형태: 복합형 화구
■ 오름 이름의 유래

〈궁대〉의 뜻은 확실치 않다. 산이 마치 활모양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오름 이름의 어원

〈궁대오름〉은 6개의 고지도에 나타나고 있다.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 1709』 『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 1721』 『제주삼읍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 『제주도도 濟州島圖』 『제주삼읍전도 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 旌義郡地圖(1872)』에 〈弓大岳(궁대악)〉이라고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87]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와 주변묘의 비석, 오늘날의 지도 등에는 〈弓帶岳(궁대악)〉 〈궁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弓〉은 〈궁〉의 음가

87)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제주고지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20)

자 표기이다. <大>와 <帶>는 <대>의 음가자 표기이다. <弓大岳(궁대악), 弓帶岳(궁대악)> 등은 <궁대오름>의 표기이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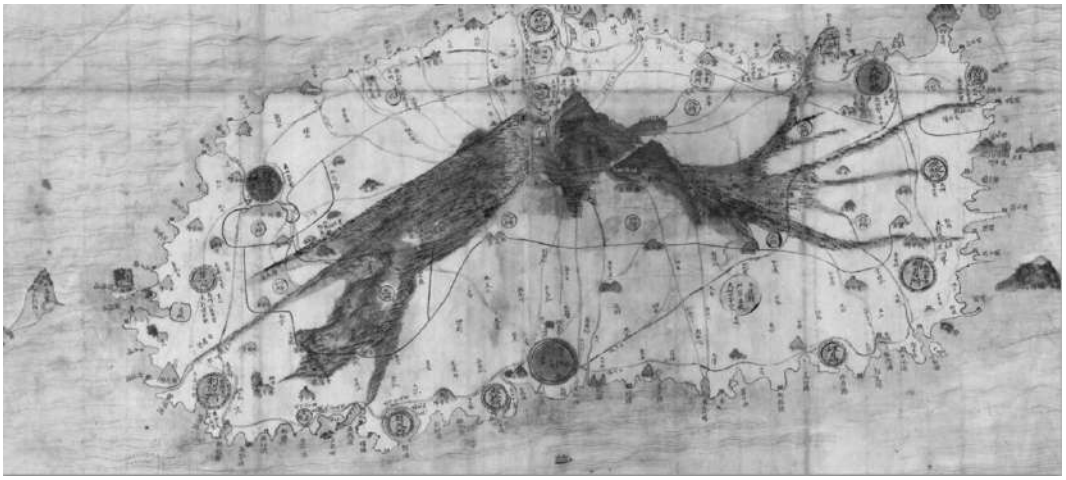
■ 오름의 특징



▲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궁대오름

북서향으로 넓게 벌어진 복합형 화구로 그 안에는 둥그렇고 넓은 원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원형 화구는 절반 이상이 침식되어 일부분만 남아있는 형태로, 화구 중앙에는 자그만 알오름(火口丘, 화구구)[89]이 솟아 있다. 남쪽으로 보면 동서로 길게 누워 있는 형태이다. 오름 전 사면에 해송과 삼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산 전체를 덮고 있고, 주변은 목장 지대로서 풀밭을 이루고 있다. 수산2리에서 서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들어가 남거봉을 지나면 <뒤굽은이>와 이웃해 있는 오름이다.

탐방코스는 왕복 1.2km 정도이고,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소나무, 활엽수 및 관목지대를 통과하여 전망대로 오를 수 있다.



▲ 영주산대총도 瀛洲山大總圖(1721)에는 <궁대오름>을 <弓大岳>으로 표기하고 있다.

88)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오창명, 1998)
89) 알오름(火口丘, 화구구): 한자어 난악(卵岳)에서 온 말로 알처럼 〈자그마하다〉는 뜻이다.

뒤굽은이

■ **九分岳(굽은오름), 後曲岳, 후궁악(後弓岳), 뒤곱은이**



▲ 멀리서 바라 본 뒤굽은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4,504 일대이다.
■ 표고: 206.2m, 비고: 36m, 둘레: 1,188m, 저경: 389m
■ 면적: 54,168㎡
■ 형태: 말굽형 분화구
■ 오름 이름의 유래

後弓岳(후궁악)의 한자 표기로 보면 활의 뒤쪽과 같이 구부러져 있다는 뜻에서 붙인 것으로 보이며, <뒤굽은이>의 한자 차용 표기라 할 수 있다. 오름 뒤쪽인 북쪽이 구부러져 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 오름 이름의 어원[90]

<굽은오름> 또는 <뒤굽은이>는 제주고지도인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幷序, 1709』 『제주삼읍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 『제주도도 濟州島圖』 『제주삼읍전도 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 旌義郡地圖, 1872』 등 5개 지도에 <九分岳(구분악)>으로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91] 『제주지도 濟州地圖, 1872』와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에는 <後曲(후곡)

90)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오창명, 1998)
91)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제주고지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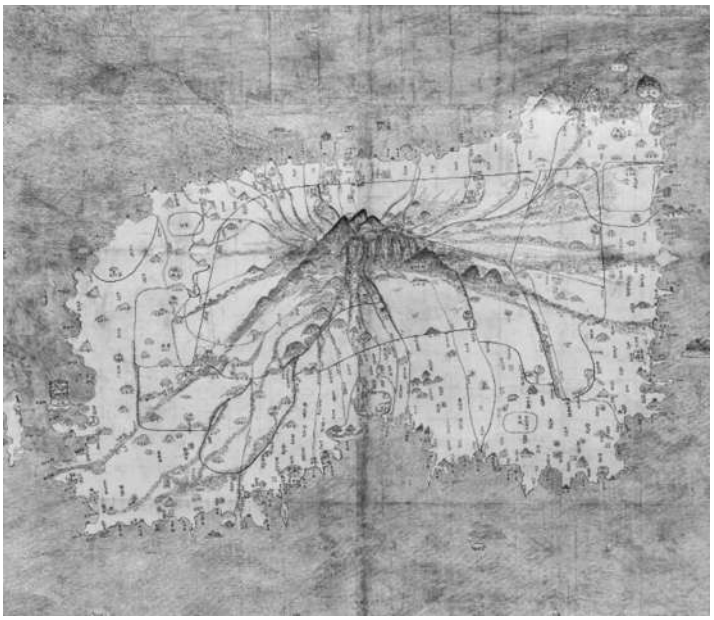
악
岳>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문서 등에는 <後曲岳[92] 南花岳(남게오름)[93] 後曲岳(뒤곱은이)>[94]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주변의 묘 비석에는 <後俯岳, 後弓岳, 後弓凹, 後弓> 오늘날의 지도에는 <後曲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九分>은 <구븐, 굽은>의 음가자 표기이다. <曲>과 <俯> <고븐, 곱은, 구븐, 굽은(曲)>은 <고불씨라> <俯> <구>의 훈독자 표기이다. 後는 <뒤>의 훈독자 표기, <岳>은 <오롬,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後弓岳>과 <後弓凹>등도 <뒤굽은이>의 한자 표기이다. <後弓>은 활의 뒤쪽과 같이 구부려져 있다는 뜻이다. 즉, 오름 뒤쪽인 북쪽이 활과 같이 구부러져 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95]

■ 오름의 특징

길이 600m의 등성마루가 구부러지며 화구를 감싸 안고 서~서남향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로 초승달 모양을 이루고 있다. 화산체 형성 당시 원형분화구에서 서쪽 부분이 침식되어 없어진 형태이다. 전 경사면에 부분적으로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풀밭을 이루고 있다. 탐방코스는 성산읍 수산 2리에서 서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약 3.5km 진입한 곳에 위치해 있다.



▲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뒤굽은이> 오름을 <九分岳>으로 표기하고 있다.

92) 國譯增補耽羅誌(濟州文化院, 2016)
93) 旌義郡誌(吳文福, 2005)
94) 우리固有地名由來集(南濟州郡, 1995)
95)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오창명, 1998)

돌리미오름

■ 돌미, 돌이미(乭伊尾), 선돌(立石)



▲ 금백조로에서 바라본 돌리미오름

■ 위치: 성산읍 수산리 4535 일대이다.

■ 표고: 186.4m, 비고: 26m, 둘레: 941m, 저경: 366m

■ 면적: 33,377㎡

■ 오름 이름의 유래

봉(峰)의 한 부분이 돌로 된 꼬리가 달렸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현재는 그 원형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다.

■ 오름 이름의 어원[96]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에는 <돌리미오름>을 <乭山(돌 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제주지도에 <乭山>, 주변의 비석에는 <乭伊尾(돌 이 미)>, 오늘날의 지도에는 <乭山>으로 표기하였다. <立>은 <선>의 훈독자 표기, <石>은 <돌>의 훈독자 표기이다. <乭>은 <돌>의 한자로, 훈독자 표기이다. <伊>는 <이> 또는 연음 <리>의 음기자 표기, 山은 <뫼>의 제주도 방언 <미>의 훈독자 표기이다. <立石>은 <선돌>의 표기, 乭伊尾는 <돌리미>의 표기, <乭山>은 <돌미>의 표기이다. <돌리미>의 <돌(石)의 미(山)의 구성이다. 곧

96)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오창명, 1998)

돌무더기가 오름 정상에 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약 〈石〉과 〈乭〉이 훈가자 또는 음가자 표기로 쓰인 것이라면, 이 오름 역시 〈돌린, 回〉 〈뫼, 山〉의 뜻으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름의 특징

나지막하게 가로누워 있는 풀밭 오름이며, 북동~남서로 길게 누운 산체는 세 봉우리로 이루어져 동쪽 봉우리에는 큰 바위가 박혀 있고, 바위 사이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성산읍 수산2리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약 3.5km 들어가 <남거봉>을 지나면 <궁대오름>과 이웃해 있는 오름이다.



▲ 성산포 城山浦 조선총독부(1918)에 <돌리미오름>이 <乭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천연동굴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동굴은 모두 158개로 조사되어 있으며, 그중 우리 마을에는 천연기념물 467호로 지정된 <수산동굴, 츠남못굴>과 비지정 동굴인 <벌라릿굴>을 포함해 8개가 있다.[97] <칠낭궤>는 현재까지 문헌상 조사된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굴이다.

동굴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을 말한다. 크다 보니 종종 지하 깊이까지 펼쳐지는 규모를 자랑하며, 깊을수록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수천수만 년 동안 만들어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미지의 세계로 통한다.

태곳적부터 원시인들은 동굴을 집으로 삼거나 무덤이나 종교 의식의 장소로 활용해 왔다. 동굴 안에 보관된 유물은 기후나 동물들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므로, 고고학적 자료가 나오는 곳이 되기도 한다.

연중 기온이 비교적 일정하다. 일반적으로 15~18℃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피서의 목적으로 동굴을 찾는 사람도 있다.

[문화재 지정동굴: 1개소]

동 굴 명	소 재 지	길 이	비 고
수산동굴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9-1	4,520m	천연기념물 467호

[비지정동굴: 7개소]

동 굴 명	소 재 지	좌 표		인근 기생화산
벌라릿굴	수산리 4,083	33°25′56″2 N	126°50′23″2 E	남거봉
알벌라릿굴	수산리 4,062	33°25′42″7 N	126°50′30″0 E	남거봉
구레기굴	수산리 3,148	33°26′10″7 N	126°51′23″5 E	-
칠 낭 궤	수산리 1,019	-	-	-
누루못굴	수산리 364-3	33°26′46″3 N	126°53′34″5 E	-
사 싯 굴	수산리 741-1	33°26′28″0 N	126°53′14″7 E	-
공쟁이굴	수산리 1,885	33°25′20″7 N	126°52′20″9 E	-

97)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 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3)

수산동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3,999-1 일대이다.
- 현 상태: 천연기념물 467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거봉>에서 남쪽으로 900m 지점이다. 동굴 내부에 연못이 1개 있으며, 가지굴과 용암주석, 용암교, 용암폭포 발달이 좋다. 입구 크기는 1.5×0.7m 정도이다.


6킬로의 大洞窟
城山面 水山里 판에, 吳南宗씨 가發見
12M 되는 石柱도
평평한 돌바닥에 높은 15M나
搬入船

▲ 6킬로의 大洞窟의 발견을 처음 보도한 濟南新聞 기사(1970. 2. 23.), 원안은 오남종(수산2리)

- 동굴의 규모: 제주도 내 동굴 중 4번 째로 긴 동굴로 알려져 있으며, 길이는 4,520m이다. 입구는 천장의 함몰로 형성된 수직형 소형입구 1개뿐이다. 주민들은 〈ᄎᆞ남못굴〉[98]이라 부르며, 수산동굴이란 명칭은 나중에 탐사자 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 동굴의 등급 기준: 세계 자연 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굴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국가지정문화재적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동굴인 〈가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 수산동굴 입구(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입구 둘레의 넓은 곳은 1.5m 정도이다)



▲ 동굴 내부모습(가지굴과 용암주석, 승상용암 발달이 좋다)

98) ᄎᆞ남못굴: 〈수산동굴〉을 주민들은 〈ᄎᆞ남못굴〉이라 불렀으며, 주변에 〈ᄎᆞ남〉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ᄎᆞ남〉은 참나무의 제주방언이다. 주변에 〈ᄎᆞ남못〉이 있다.

벌라릿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4,083 일대이다. 좌표는 33°25′56″2 N, 126°50′23″2 E이다.
- 현 상태: 남거봉에서 서쪽 400m 지점이다. 입구는 모두 2개로 제 1입구 북쪽 동굴은 짧으며 막장 부분만 영구암대가 형성되어 있고 바닥은 점토와 구아노[99]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이 굴은 4·3사건 당시 수산리 주민들의 피난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 동굴의 등급 기준: 동굴의 등급은 매장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천연동굴로 〈다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벌라릿굴 입구모습(왼쪽: 남측입구, 오른쪽: 북측입구)

알벌라릿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4,062 일대이다. 33°25′42″7 N, 126°50′30″0 E이다.
- 현 상태: 남거봉 서쪽 450m 떨어진 용암대지상의 함몰구 남쪽 끝에 입구가 있다. 용암폭포, 용암선반, 용주석이 두드러진다. 용암종유의 다양한 발달을 보이며 동굴산호, 용암석순, 용암석 용암곡석 등이 산재한다. 〈벌라릿굴〉 아래쪽에 있어 〈알벌라릿굴〉이라고 부른다.
- 동굴의 등급 기준: 동굴의 등급은 매장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천연동굴로 〈다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알벌라릿굴(사진제공 강희규)

99) 구아노(guano): 해안 또는 섬에 군생하는 물새들의 배설물이 퇴적된 것이다.

구레기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3,148 일대이다. 33°26′10″7 N, 126°51′23″5 E이다.
- 현 상태: 남거봉 정상에서 1.3km 떨어진 지역이며, 입구 크기는 1.1×0.9m이다. 천장에는 분기공이 발견되며, 용암종유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지형도에는 〈구렁이굴〉로 표기되어 있다.
- 동굴의 등급 기준: 매장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천연동굴인 〈다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 구레기굴(사진제공 강희규)

칠낭궤

- 위치: 수산리 1,019 일대이다.
- 현 상태: 〈칠낭궤〉는 칠낭[100]이 자라는 〈바윗굴〉, 즉 궤를 의미한다. 예로부터 옻나무가 많았던 지역 특성상 붙은 이름이다. 〈칠낭궤〉는 밭 한가운데 있는 큰 구멍을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용암동굴이며, 동굴 내부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온다. 5m정도 내려가야 하는 동굴이다. 칠낭궤는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터로도 활용되었을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 친숙한 장소이다. 4·3사건 당시 마을 주민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 칠낭궤 입구와 내부모습

100) 칠낭: 옻나무의 제주방언이다.

누루못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364-3 일대이다. 33°26′46″3 N, 126°53′34″5 E이다.
- 현 상태: 2개의 입구가 15m 간격으로 나 있으며 입구 주변은 덤불이 무성하다. 바닥은 진흙과 구아노가 퇴적되어 있고 4·3사건 당시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 돌담이 동굴의 일부를 막고 있다. 입구의 크기는 1.8×0.6m이다.
- 동굴의 등급 기준: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미약하며, <라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 누루못굴(왼쪽은 서쪽 입구, 오른쪽은 동쪽 입구)

사싯굴(ᄉᆞ싯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741-1 일대이다. 33°26′28″0 N, 126°53′14″7 E이다.
- 현 상태: 수산초등학교 남쪽 30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ᄉᆞ싯동산, 四時->이라는 고유지명에서 유래되는 굴이다. 지금은 함몰되어 있으나, 1970년대까지는 동굴 입구에 공간이 있었으며, 동굴 한쪽에는 연못이 1개 있었는데,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동굴의 등급 기준: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없는 〈마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 사싯굴(ᄉᆞ싯굴) 입구가 있었던 자리이다. 현재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입구는 매몰되어 있다.

공쟁이굴

- 위치: 성산읍 수산리 1,885 일대이다. 33°25′20″7 N, 126°52′20″9 E이다.
- 현 상태: 수산에서 난산으로 향하는 16번 국도 1.6km 지점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600m 지점의 밭 한가운데 있다. 천장에는 화강암이 뚜렷이 나타난다. 바닥은 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 동굴의 등급 기준: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나 그 주변의 지질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술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라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굴 내부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이 고이는 곳이 있었는데, 주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곳에 물을 마시러 오기도 하였다.



▲ 위에서 바라본 공쟁이굴 동서쪽 입구. 다른 동굴에 비해 크기가 작고 굴 입구 등은 큰 돌 등으로 가려져 있다.

제2절 연못, 습지

우리마을은 연못이나 습지를 통해서도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의 특징을 보여준다. 마을 곳곳마다 연못(못)이 있었고, 습지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 연못은 소(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성앞못, 도로못, 이전물 등이 대표적이다.

습지는 자연의 힘에 의하여 땅이 우묵하게 팬 자리에 늘 물이 괴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며,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는 지형이다. 수산한못, 퀸남못, 누루못 등은 습지 형태의 특징을 나타낸다. 우리마을에는 연못 및 습지 또는 작은 규모의 용천수 등 27개가 있었다. 지금은 성앞못, 동치못, 누루못, 진빌레못, 진안물, 양백이물, 통개나물, 공쟁이못, 맥다리물 등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 우리마을의 연못, 습지 및 용천수

이 름	다른이름	위치	연못, 습지의 구분[101]
수산한못	大池(대지), 池(지)	수산리 3,990	연못, 습지
이전물	伊全(이전)물	수산리 2,835-1	연못, 습지
성앞못	城前池(성전지)	수산리 580	연못
폭남못	폭낭못	수산리 4,399-1	습지
동치못	-	수산리 734	연못
누루못	-	수산리 354	연못, 습지
도로못	도리못, 道路池	수산리 645	연못
개나물	-	수산리 900-9	습지
돌리미못	-	수산리 4,533	습지
통한못[102]	한못서못	수산리 3,984	습지
후곡악못	-	수산리 4,500	습지
보좌물	보좌수(保左水)	수산리 3,119-1	습지

101)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
102) 통한못: 성산읍지(2005)에는 〈통한못〉으로 표기되고 있고 〈한못서못〉이란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

이 름	다른이름	위치	연못, 습지의 구분
퀸남못	-	수산리 4,410-7	습지
거머리물	-	수산리 4,396	습지
캐물	캐여물	수산리 1,596	용천수
양백이물	良福伊水(양복이수)	수산리 2,297	연못
푸수물	浮水(부수)물	수산리 1,998	연못, 습지
진빌레못	-	수산리 1,141	습지
진안물	진안물통	수산리 580	용천수
한질곳못	-	수산리 482-2	연못
동산물	-	수산리 2,530	연못
전못	전(田)못, 즌못, 잣못	수산리 1,904	연못, 습지
새 우물	-	수산리 1,992-6	연못
통개나물	-	수산리 1,703	연못, 습지
츠남못	츠낭못	수산리 3,999	연못, 습지
공쟁이못	-	수산리 1,885	연못, 습지
맥다리물	-	수산리 151-3	연못, 습지



수산한못, 大池(대지), 池(지)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수산한못(大池, 池)이다. (사진제공 강승욱)

- 위치: 수산리 3,990 일대이다.
- 면적: 3,722.4㎡
- 이름의 유래: <한못>은 못이 크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수산한못>이란 이름이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고문서와 고지도에는 <大池> <池>로 표기하고 있으며,[103] <한못>의 음가자 표기인 <漢池, 한지>라는 명칭도 찾아볼 수 있다.[104]
  <大池>는 左縣 동쪽 십오 리에 있고, <南花岳> 남쪽 산기슭 주변이 이십삼 리이다. 못에 <양하>[105]와 <네가레>[106]가 있다(大池. 左縣東十五里南花岳南麓周二十三里池有蕁蘋)고 하였다.[107] 또 <남게오름, 南花岳, 낭끼오름>은 좌현 동쪽 십 리에 있고, 수산경

103) 國譯增補耽羅誌(濟州文化院, 2016)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
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104) 水山里誌(1994), 남제주군 固有地名(南濟州郡, 1996)에서는 〈수산한못〉을 〈漢池〉로 표기하고 있으나, 못이 크다는 뜻에서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漢〉은 〈크다〉의 차용표기로 사용례로는 〈한질ᄀᆞ못〉 〈한질(길)〉 〈漢川〉 등이 있다.

105) 양하(蘘荷): 한자어로 박(蕅)이다. 높이는 40~100cm이며, 잎은 두 줄로 어긋나고 피침 모양이다. 일반가정에서 현재도 흔히 먹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양애〉라고 하며 제사 때 가정마다 진설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106) 네가레: 한자어로 빈(蘋)이다. 양치식물이며 네가랫과의 여러해살이 수초(水草)이다. 줄기는 높이가 7~20cm이고 옆으로 뻗어 나가며, 네 개의 작은 잎은 〈田〉자 모양이다.

107) 耽羅誌草本(李源祚), 제주교육박물관자료집(2007)



▲ 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1899)에 〈수산한못〉을 〈池〉로 기록하고 있다.



▲ 탐라전도 耽羅全圖(고지도첩 古地圖帖)에는 〈수산한못〉을 〈大池〉로 기록하고 었다.



▲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叢圖)에는 〈수산한못〉을 〈大池〉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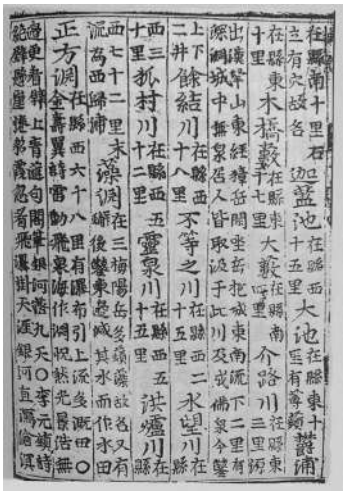
이다. 남쪽 기슭에 대지가 있고, 〈양하〉와 〈네가레〉가 서식한다(左縣東十里 水山境南麓有大池産蓴蘋)라고 하였다. 『남제주군 固有地名(1996)』에서 〈한못〉을 못이 크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108] 또 大池는 현동쪽 10리에 있고, 양하와 네가래가 있다(大池左縣東十里有蓴蘋).[109]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고지도인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비고 東輿備古), 17세기후반)』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叢圖), 18세기』 『탐라전도 耽羅全圖(고지도첩 古地圖帖) 18세기)』를 포함해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청구도 靑邱圖), 김정호, 1834』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도 東輿圖), 김정호, 19세기 중반』 등에는 모두 같은 이름인 〈大池〉로 표기되어, 耽羅誌草本(下)과, 國譯增補耽羅誌에 나타나는 〈大池〉와 일치한다. 그러나,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지나조선고지도 支那朝鮮古地圖), 17세기)』 『정의지도 旌義地圖(정의군읍지 旌義郡邑誌, 1899)』에는 〈池〉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 역사적 배경: 〈수산한못〉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곳이다. 1276년(충렬왕 2) 고려 후기에 일어난 삼별초 항쟁으로 여몽연합군이 고려를 진압하게

108) 남제주군 南濟州郡固有地名(南濟州郡, 1996)
109) 耽羅志(李元鎭, 1653)

될 당시 이곳에 일본 정벌을 위해 군마를 키울 목적으로 수산평[110]에 탐라목장을 설치했다. 이때 160필의 말을 수산평에 방목하고 말들에게 먹일 물이 필요하여 조성된 연못이다. <수산한못>은 과거 말사육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으로의 보존가치가 높다. <한못>의 <漢, 한>은 크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 耽羅誌(李元鎭, 1653). <수산한못>을 <大池>로 기록하고 있다.

■ 못의 기능: 소와 말을 방목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집집마다 당번을 정하여 낮에는 수산평 근처에서 가꾸고, 저녁에는 집으로 소와 말을 데려오는데, 이 때 테우리들이 한낮에 곳곳에서 모여들어 하루에 두 번 정도 소와 말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다.
연못은 크게 가운데 산책로를 지나면서 동서로 나누어지는데 동쪽 연못의 길가에는 과거에는 테우리들이 먹을 수 있었던 <고물통>이 있다. 연못 동쪽에는 소와 말들을 몰아 넣어 방역하거나 줄을 맬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담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있다. 못의 한가운데는 작은 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연못보수: 빗물에 의해 토사가 유입돼 연못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2011. 9월에 제방을 보수하고 식수통 설치, 잔디 식재, 방역 장소설치 및 연못 내 토사를 제거해 연못을 복원했다.

■ 멸종위기 야생식물 전주물꼬리풀 복원지: 본종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여미지식물원, 상효식물원, 환경부에서 주축이 되어 사라져 가는 식물들의 보전을 위하여 200여 본의 전주물꼬리풀(*Dysophylla yatabeana Makino*)을 2010. 7월에 근처 자생지에서 개체를 채집하여 근경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연못 주변에 복원하였다.

■ 식물상: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전주물꼬리풀, 좀어리연, 남방개, 어리연, 마름, 미나리, 곡정초, 질경이, 수염가래꽃, 사마귀풀, 외꽃, 개구리갓 등이 분포하고 있다.[111]

---

110) 水山坪: 고려 후기의 목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다, 군마 생산을 위해 1276년 몽골식 탐라목장을 설치했다. 이 목장은 『원사(元史)』에도 등장하며, 원나라가 점령지에 설치한 14개 황가목장(皇家牧場) 중의 하나였다.

111)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



▲ 위에서 내려다 본 수산한못(大池, 池) 전경



▲ 소와 말의 방역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담장



▲ 전주물꼬리풀(*Dysophyllayatabeana Makino*)



▲ 네가래(*Marsilea quadrifolia*)



▲ 양하(*Zingiber mioga*)

이전물(伊全 –)



▲ 1980년대의 이전물(水山里誌, 2004)

- 위치: 수산리 2,835-1 일대이다. 1,136번 도로 수산2리 마을 입구에서 남쪽으로 수산리 마을 체육공원을 조금 지나 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 면적: 2,080.7㎡
- 이름의 유래: 수산2리 이(伊)씨의 부인 전(全)씨가 빠져 죽은 못이라는 데서 <이전물>이라 한다.
- 1917년에 구우면(舊右面) 상명월리 출신인 홍덕화 여사가 현재의 <이전물>이 있는 곳에 통을 파면 물이 난다고 해서 못을 판 결과, 샘물이 났으므로 기념비를 세워 그 공을 기렸다. 현재는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며, 여기에 세워졌던 기념비도 행방불명이 되어 명문과 사진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1960년대 후반까지





▲ 과거 〈이전물〉의 모습과 여기에 세워졌던 〈南陽人洪氏記念碑〉와 이전물 관련기사(제남신문, 1979. 9. 17.)

만 해도 마을 주민들이 붕어 낚시를 했을 정도로 수심이 비교적 깊고 물이 많았었다. 연못은 마을 주민들이 식수나 생활용수로 했던 <고물통>과 소나 말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큰물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성앞못, 城前池(성전지)

- 위치: 수산리 580 일대이며, 학교 정문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 이름의 유래: <水山鎭城> 앞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성전지(城前池)라는 다른 이름도 있다.[112]
- 수산초등학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문 왼쪽의 과수원 돌담하고 붙어 있었다. 학교 정문 쪽으로는 수심이 깊어서 아이들이 목욕을 할 수 있었으며, 큰 암석이 놓여 있었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이 빨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도 하였다. 도로에 가까운 못 모퉁이에도 작은 암석이 놓여 있었으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쪽이 낮은 지역으로 맨 먼저 물이 넘쳐흘렀다. 특히 장마철에는 많은 물이 흘러넘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어른들이 업고 넘어 가기도 하였다. 개구리와 맹꽁이가 많았고, 과수원 밭담 위에서 낚시로 개구리를 잡기도 하였다. 말과 소들이 물을 마시는 곳으로도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옛날 못의 서쪽에는 버스 정류소가 있으며, 원형은 찾아볼 수가 없다.



▲ <성앞못>의 과거 위치와 현재 상태

폭남못, 푹낭못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399-1 일대이다.
- 이름의 유래: 폭남못, 폭낭못이라고 하며, 소와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사용되는

112) 우리固有地名由來集(南濟州郡, 1995)




▲ 〈폭남못〉의 현 상태와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못으로, 연못가에 〈폭낭, 팽나무〉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궁대오름〉 사거리에서 동북쪽 농로를 따라 1.3km 지점에 위치한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 식물상: 폭수련, 마름, 세모고랭이, 남방개, 버드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113]

동치못

- 위치: 수산리 734 서쪽 일대이다.
- 2개의 못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큰 못과 작은 못은 과거 농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 떨어져 있었다. 작은 못은 큰 못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이용했다. 큰못은 북쪽 도로변과 〈빌레〉 및 〈테역밭〉이 있었던 서쪽 방향에 큰 암석이 놓여 있어 빨래터로 많이 이용되었다. 말과 소들이 이 못에서 물을 마셨으며, 가끔은 붕어 낚시도 이루어졌고, 아이들의 목욕 장소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져 정자 및 수산1리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동치못〉이란 어원과 유래는 찾아볼 수가 없다.




▲ 〈동치못〉이 었었던 자리에 현재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113)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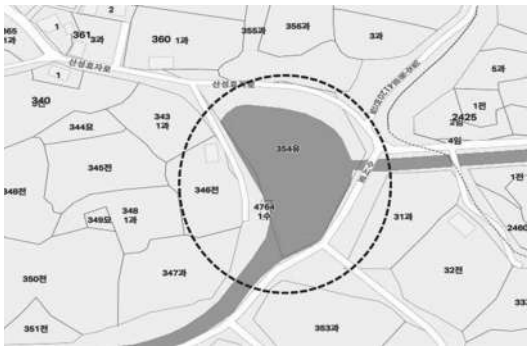
누루못



▲ 1970년대의 누루못

- 위치: 수산리 354 일대이다.
- 이름의 유래: 넓은 지역에 못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누루못>이라 불린다.
- 못은 깊은 곳과 얕은 곳을 포함해 3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옛날에는 비교적 편평하고 넓은 곳에 얕은 못이 형성되었는데 못 군데군데 수초가 형성된 것이 특징이었다. 붕어 낚시가 이루어졌던 곳이며, 동쪽에는 큰 팽나무 2그루가 지금도 그대로 있으나, 못의 옛날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은 마을의 홍수 대비를 위해 저류지로 개발되어 있다.





▲ 누루못의 현재 상태

도로못, 道路池 (도 로 지)

- 위치: 수산리 645-2 일대이다.
- 이 못은 지금의 노인회관 앞 팽나무와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있었으며, 원형 모양으로 길가에 있다는 데서 <도로못>이라 불렸다. 못은 2개가 있었는데 동쪽의 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식수용으로 이용하는 <고물통>이다. 한쪽 못은 빨래와 소와 말들이 급수용으로 이용하였다. 2006년도까지는 이 자리에 수산보건진료소가 있었다. 현재는 풍치목인 팽나무 2그루가 나란히 있고,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대왕주택이 들어서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옛날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 이 못에는 붕어가 많아서 어린이들이 낚시를 즐겼으며, 심지어 이승택 제주도지사 재임 시에는 이곳에 와서 부부석에 앉아 낚시를 즐겼던 곳이기도 하다.





▲ 도로못, 道路池(夫婦石 앞에 있었으며 비가 많이 올 때는 부부석이 있는 곳까지 물이 찼었다)

개나물[114]

- 위치: 수산리 900-9 일대이다.
- 면적: 391.3㎡
- 이 지역 일대가 드넓은 들판인데 아주 작은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식물상은 물꼬챙이골, 송이고랭이, 곡정초, 물달개비, 좀어리연꽃 등이 있으며, 주변 식물로는 억새, 띠, 자귀풀, 찔레, 인동, 칡, 마디꽃, 쑥 등이 있다.



▲ 개나물

114) 개나물: 城山邑誌(城山邑, 2005)에는 〈개나물〉로 표기하였고,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에는 〈대나물〉로 기록되고 있다.

돌리미못[115]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33 일대이다. 〈돌미오름〉 북쪽 100m 지점이다.
- 면적: 899.3㎡
- 〈돌미오름〉 가까이에 있어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강우시에만 물이 고이며, 어리연, 마름, 세모고랭이 등 식물이 서식한다.



▲ 돌리미못

통한못,[116] 한못서못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84 일대이다.
- 면적: 463㎡
- 수산한못에서 서쪽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만 물이 고이는 곳이다.



▲ 통한못, 한못서못

후곡악못[117]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00 일대이며, 〈뒤굽은이〉 남서쪽 100m 지점이다.
- 면적: 554.0㎡
- 〈뒤굽은이〉를 한자로 〈後曲岳, 후곡악〉이라고 칭하는데 여기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일반인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만 물이 고이는 곳이다.



▲ 후곡악못

115) 돌리미못: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
116) 통한못: 城山邑誌(城山邑, 2005)에는 〈통한못〉으로 표기하였고,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에는 〈한못서못〉으로 기록되고 있다.
117) 후곡악못: 생명의 원천 제주습지를 찾아서(제주발전연구원, 2016)

보좌물,[118] 保左水(보좌수)

- 위치: 수산리 3,119-1 일대이다.
- 작은 우물이지만 생수가 솟아 도움을 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약 200년 전 마을 주민들이 세 개의 연못을 조성하여 두개는 식수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말과 소의 급수용으로 사용하였다.



▲ 보좌물



▲ 바깥에서 바라본 보좌물이 있었던 곳의 모습

퀸남못[119]

- 위치: 수산리 4,419-7 일대이다.
- 못 주위에 <귓가시낭>[120]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소에도 얕은 물이 고여 있으며, 습지를 이루고 있다. 못의 동쪽과 북쪽 주변에는 <귓가시낭>으로 둘러 싸여 있다. 금백조로 북쪽 편에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다.



▲ 퀸남못

118) 城山邑誌(城山邑, 2005)
119) 城山邑誌(城山邑, 2005)
120) 귓가시낭: 구지뽕나무의 제주방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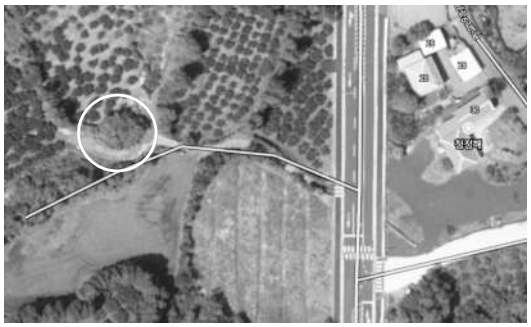
거머리물[121]


▲ 거머리물

- 위치: 수산2리 서쪽 3km 4,396 일대이다.
- 이 연못에 거머리가 서식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섬의 봉천수나 연못, 샘 등에는 거머리가 거의 없지만, 이 연못에는 유독 거머리가 많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캐물, 캐여물

- 위치: 수산리 1,596 일대이다.
- 수산 서성일로와 수산서남로 사이 도로 중간지점 서쪽 작은 골목 서쪽방향 50m쯤 거리에 위치해 있다. 크기는 길이가 10m, 폭이 6m 정도의 타원형이다. 물이 많이 고일 때에는 물의 깊이가 30cm 내외이며, 물이 마르면 돌빌레 틈에서 조금씩 물이 솟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못의 둘레는 참식나무, 팽나무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 캐여물, 캐물

양백이물, 良福伊水 (양 복 이 수)

- 위치: 수산리 서쪽 1km지점 2,297 일대이다.
- 〈양백이물〉은 극히 작은 우물인데 이 물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 본디 福이 가득한 물이라는 뜻에서 〈양복이물〉이라고 부르던 것이 〈양백이물〉이 되었다.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121) 城山邑誌(城山邑, 2005)

푸수물, 浮水(부수)-



▲ 푸수물(浮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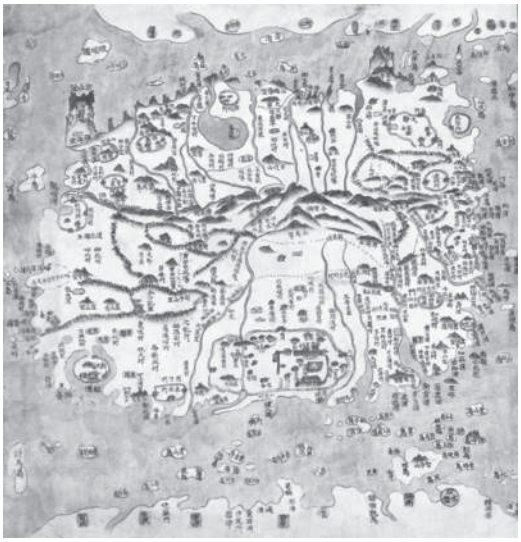
- 위치: 수산리 1,998 일대이다.
- 비가 내리기만 하면 사방으로 잘 넘친다고 하여 〈浮水-, 부수물〉 이라 한 것이 와전되어 〈푸수물〉이 되었다. 지금도 안 쪽으로 들어가면 물이 고여 있다. 동쪽으로는 숲과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진안물

- 위치: 수산리 580 일대이며, 지금의 학교운동장 동쪽 부근이다.
- 지금의 〈수산진성〉안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고지도에는 〈營泉(영천)〉 〈背泉(배천)〉 〈泉(천)〉, 『제주읍지 濟州邑誌』에는 〈井(정)〉 등으로 기록되고 있다. 〈營泉(영천)〉이란 명칭은 『제주목 濟州牧(지승 地乘)』과 『제주목 濟州牧(호남전도 湖南全圖)』에 표기되었다. 〈背泉(배천)〉은 『제주 濟州(전라남북여지도 全羅南北道輿地圖)』와 『제주 濟州(여지도 輿地圖)』에, 〈泉(천)〉은 『제주삼현도 2 濟州三縣圖 2(해동지도 海東地圖)』와 『수산성조 首山城操(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1703』에 나타나고 있다.
  〈돌빌레〉위에 움푹 파인 곳에서 물이 솟아 나와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물허벅 하나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양은 적었다고 한다. 샘물은 1970년대까지도 조금씩 솟아 나왔다고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증언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 근처에 큰 팽나무가 심어져 있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 샘물이 솟아 나왔던 진안물 위치에 팽나무가 심어져 있다.



▲ 제주 濟州(여지도 輿地圖)에는 〈진안물〉을 〈背泉〉으로 기록하고 있다.



▲ 제주목 濟州牧(지승 地乘)에는 〈진안물〉을 〈營泉〉으로 기록하고 있다.

진빌레 못

- 위치: 수산리 1,141 일대이다.
- 넓고 편평한 큰 돌 즉, 너럭바위가 있는 주위에 물이 항상 고여 못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 소나 말의 급수용, 빨래, 목욕 등에 이용되었고, 어린이들이 개구리나 잠자리를 잡으며 놀던 곳이다.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한못 → 진빌레못 → 성앞못 → 누루못 →고성리를 거쳐 바다로 흘러갔다.



▲ 1980년대의 진빌레 못

한질곳못

- 위치: 수산리 482-2 일대이다.
- 〈한길〉 곧, 대로변에 있는 못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수산리에서 시흥리 이르는 길가에 있는 못이다.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못에서 빨래도 하고, 한쪽에서는 말과 소의 급수용으로 사용했다.





▲ 한질곳못의 위치와 현재 상태

동산물

- 위치: 수산리와 성읍리 사이 수산리 2,530 일대이다.
- 높은 동산의 정상에 작은 연못이 있어서 연유한 이름이다. 과거에는 말과 소의 급수용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 동산물의 현재모습

전못(田-), 존못, 잣못

- 위치: 수산리 1,904 일대이다.
- 밭이 한가운데 못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서는 〈존못〉 또는 〈잣못〉이라 부른다.



▲ 전못(田-, 존못, 잣못)

새 우물

- 위치: 수산2리 입구 500m 지점, 1,992-6 일대이다.
- 이곳에 새로운 우물을 조성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통개나물

- 위치: 수산리 1,703 일대이다.
- <통개나물>은 우리 마을의 <큰가름> <동박낭가름>과 함께 설촌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 통개나물의 현재모습

초남못, 초낭못

- 위치: 수산리 3,999 일대이다.
- 연못 주위에 <초낭>[122]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 습지를 이루고 있다. 주위에는 <초남못굴>이라고 하는 수산동굴이 있다.



▲ 초남못, 초낭못

공쟁이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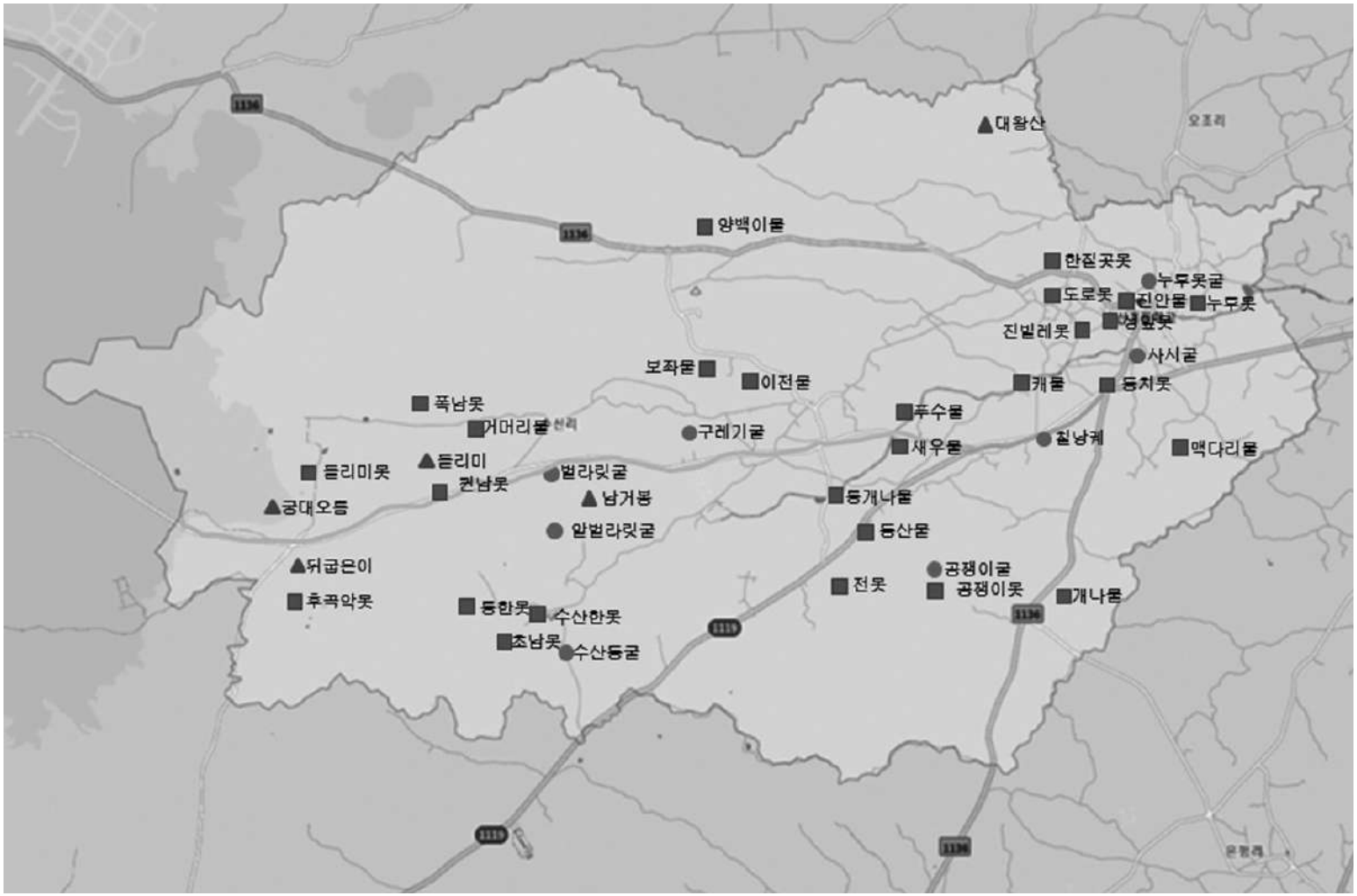
- 위치: 수산리 1,885 일대이다.
- 공쟁이굴 인근에 있으며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맥다리물

- 위치: 수산리 151 일대이다.
- 검은머들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

122) 초낭: 참나무를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 우리마을에 산재해 있는 오름, 동굴, 연못의 대략적인 위치도

제3절 고유지명 유래

마을의 지명(地名)을 정하여 붙여 놓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많은 부분에서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을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어디에나 알맞은 지명을 정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많은 지명(地名)이 축적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지명 그 속에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배여 있고, 우리 조상들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진 것도 있으며,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지명도 있어서, 우리 문화 발전의 역사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명은 전설 또는 자연지형과 연관시키거나 한자 지명 표기를 중시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구전으로 이어져 오면서 변형된 부분이 많다. 옛날의 지명은 오름이나 산 둘레에 있는 묘비(墓碑), 족보(族譜)에서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門中族譜에 南亘峰, 自隱池, 老乙於是, 소굴랭이, 百田 지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墓碑에도 老乙於是 지명이 새겨져 있다.

우리마을에는 자연물체지명, 위치지명, 형상과 성질지명, 지형지명인 자연지명이 많으며, 토지와 세제지명, 경계와 군사지명, 관아와 행정지명 등으로 나누어지는 법제지명도 더러 있다.

소나무, 버드나무 등의 수목이나 목벌(木伐), 판막(板幕) 등의 임업에 관한 산업지명도 있으며, 성씨, 인물, 민족, 생활방식, 도덕, 풍속, 미신, 종교, 교육 등과 연관되어 붙여진 인물, 인사지명도 찾아볼 수 있다.

마을지명은 총 129개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위치지명 9개소, 성질지명 20개소, 성씨지명 1개소, 행정지명 2개소, 인물지명 15개소, 형상지명, 자연물체지명, 민속지명, 미신지명교육지명, 임업지명 등이 있다.[123]



▲ 고유지명 현장답사를 함께 한 오남종, 강범식 어르신

123) 우리마을의 고유지명 유래는 우리固有地名由來集(南濟州郡, 1995), 南濟州郡固有地名(南濟州郡, 1996)을 참고하였으며, 현장 실제 확인은 오남종 이장(수산2리 10, 14대 이장), 강범식(수산1리 29대 이장) 어르신의 도움을 받았다.

▼ 우리마을 고유지명 목록

유형분류		고유지명
대분류	소분류	
법제지명	행정지명	물미 물메 물뫼, 수산1리※
법제지명	행정지명	訖前村, 花前里, 花南里, 花田, 黃茂藪, 수산2리※
자연지명	지형지명	왕뫼, 왕메, 왕미, 大王山, 旺伊岳, 王伊山, 와양뫼(臥羊岳), 대왕산※
자연지명	지형지명	木过岳(남긋오롬・낭긋오롬), 木花岳(낭곳오롬), 남거봉※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立石(선돌), 乭伊尾(돌리미), 乭伊尾峯, 乭山(돌리미)※
자연지명	지형지명	弓大岳, 弓帶岳(궁대오름)> 궁대오름※
자연지명	지형지명	九分岳(굽은오름), 後曲岳, 後弓岳, 뒤굽은이※
자연지명	성질지명	울렛ᄆᆞ르, 雷介(뇌개, 울어개)
법제지명	군사지명	위막동산, 오막동산, 아막(阿幕)동산
법제지명	군사지명	솔대왓
법제지명	관아지명	가막자리, 아막(阿幕) 座里
인물인사지명	성씨지명	이전물(伊全-)※
자연지명	성질지명	내찻물
자연지명	성질지명	누루못※
자연지명	위치지명	도로못, 도리못(道路池)※
인물인사지명	도덕지명	소저문(孝子門, 효자문), 효자문거리
법제지명	군사지명	大池, 池, 수산한못※
인물인사지명	풍속지명	젯동산(祭童山), 포젯(酺祭)동산
인물인사지명	풍속지명	사싯동산(四時童山), ᄉᆞ싯동산
자연지명	위치지명	내팟동네, 천외동(川外洞)
자연지명	성질지명	동치못※
자연지명	지형지명	노을어시(老乙於是) 동산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진빌레못※
법제지명	군사지명	사장(射場)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폭남못, 폭낭못※
인물인사지명	생활방식지명	사냥미동산, 사ᄂᆞ뫼동산, 사농미동산
자연지명	지형지명	한질긋못※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왕주굴, 왕자굴(王字窟)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양모감(梁牧監)터
인물인사지명	성질지명	양백이물, 良福伊水※
자연지명	형상지명	새미지거, 사미지거(巳尾之擧)
자연지명	형상지명	개장ᄆᆞ르(開長旨, 개장지)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조족동산(鳥足童山)

(※)가 표시되어 있는 고유지명은 본문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유지명목록만 작성하고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유형분류		고유지명
대분류	소분류	
자연지명	성질지명	물막에움, 물막산전, 마막산전(馬幕山田)
인물인사지명	교육지명	삼성지궤, 삼성제궤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사또앉은ᄆᆞ르
인물인사지명	생활방식지명	ᄉᆞ생이굴, 효생이굴(孝生伊窟)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곤됴리동산(壺乭伊童山)
산업지명	수목지명	굴묵남굴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석곽불미, 石槨墳墓(석곽분묘)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검은머들, 거믄머들
행정지명	토지지명	관전(官田)밭동산
자연지명	형상지명	구레기궤, 쇠코※
자연지명	위치지명	망ᄆᆞ르(望旨), 망지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거머리물※
산업지명	수목지명	농남ᄆᆞ르
자연지명	성질지명	날목도
자연지명	지형지명	남선불미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명지왓, 맹지왓
산업지명	수목지명	당낭벵디, 닥낭벵디
인물인사지명	생활방식지명	답단이
인물인사지명	미신지명	당머르거, 당ᄆᆞ르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동산물※
자연지명	성질지명	보자물, 보자수(保佐水)※
자연지명	위치지명	뒷가름
산업지명	토지지명	번지왓
자연지명	형상지명	벌라릿굴, 벌라릿궤※
자연지명	형상지명	벌라리왓
자연지명	성질지명	새우물※
자연지명	지형지명	본도리동산
자연지명	성질지명	뽀랑낭굴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샌동산, 백동산(白童山)
인물인사지명	교육지명	샛닷동산
자연지명	위치치명	동문동
자연지명	위치지명	서문동
자연지명	위치지명	교동
자연지명	형상지명	섬팟
인물인사지명	풍속지명	선비(善碑)동산
자연지명	성질지명	성앞못, 성전지(城前池)※
자연지명	성질지명	성전(城田)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소분이머들

유형분류		고유지명
대분류	소분류	
자연지명	형상지명	쉘목
산업지명	임업지명	水山坪, 首山坪※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새가름옛터※
자연지명	지형지명	막은산전
인물인사지명	풍속지명	묠장통
자연지명	성질지명	푸수물, 浮水池※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황무순이 가름, 황무술이, 황무수(黃茂藪)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강비장터
자연지명	성질지명	상뒤동산, 충이동산(充耳薑山), 버리동산
자연지명	지형지명	개나물※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광달이터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기심이터
산업지명	수목지명	동백낭가름, 동박낭가름
자연지명	형상지명	뒷선돌
자연지명	성질지명	뒤널은밧
자연지명	성질지명	물구렁
자연지명	형상지명	미룡당거
법제지명	수목지명	果園, 고자(高子)※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삼쟁이굴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성돌이터
자연지명	성질지명	양수(兩水)
자연지명	성질지명	윤남통
자연지명	위치지명	왕뫼동끝
산업지명	수목지명	유지낭므르
자연지명	형상지명	장지동산
인물인사지명	생활방식지명	츠남동산, 차남동산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왕머들
자연지명	형상지명	항통, 책갈통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왕자동
자연지명	위치지명	안골쇠
자연지명	성질지명	장판거리
자연지명	위치지명	뒷벵디
자연지명	성질지명	쇠선동산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진안물※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캐물, 캐여물※
자연지명	형상지명	신술므르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탈왓
자연지명	형상지명	통개나물※

유형분류		고유지명
대분류	소분류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퀸남못※
자연지명	형상지명	전못(田-), 즌못, 잣못※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ᄎᆞ남못굴, 수산동굴※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ᄎᆞ남못※
자연지명	형상지명	맥다리물※
자연지명	위치지명	큰가름, 거동(巨洞)
자연지명	형상지명	진개ᄆᆞ르
자연지명	형상지명	소굴랭이
자연지명	성질지명	백밭(百田)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박정이팟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역왓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남ᄀᆞᆺ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소낭동산
자연지명	자연물체지명	물괏
자연지명	형상지명	뱀남돌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서상희위원(徐相熙圍園)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서문창의 왓(徐文昌의 밭)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고송이위원(高松伊圍園)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문무학동산(文武學童山)
인물인사지명	인물지명	임창희위원(林昌希圍園)



울렛ᄆᆞ르, 雷介(뇌개, 울어개)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리 마을 동쪽 1번지부터 450 일대에 이르는 긴 능선이다.
- 이 지경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매우 울창했던 곳으로 <솔대왓> 동네에서 북쪽지역을 일컫는다. 사장(射場)에서 사용한 병사들이 화살대를 여기서 나는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곳의 지명이 울창한 소나무와 대나무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울창한 숲속에 우레가 칠 때면 사람들의 경외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레에서 유래된 것이라 추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는 신성한 곳에 위치하는 당이 있는데 수산본향당인<울렛ᄆᆞ르 하로산당>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에는 雷介(울어개, 在縣東二十里周二十五里, 현 동쪽 20리에 있다. 둘레가 25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막동산, 오막동산, 아막(阿幕)동산

- 분류: 법제지명-군사지명
- 위치: 수산리 383, 339-1 일대이다.
- 약 570여 년 전인 1443년(세종 25)이후 수산진이 완성되어 수산봉, 지미봉 등지의 봉수대에서 연락 사항을 받아서 수산진[124]으로 전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막(幕)이 있었던 동산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오막동산의 위치와 현상태

124) 수산진(水山鎭): 당시 수산진(水山鎭)에는 首山峰, 城山, 指尾 등 3개소의 燧燧臺와 俠子, 吾照浦, 終達 3개소의 烟臺가 예속되었었다.

솔대왓

- 분류: 법제지명-군사지명
- 위치: 수산리 44, 45 일대이다.
- 속칭 수산1리 알동네 즉, 양경림, 강동익 주택의 북쪽 지역을 일컫는다. 과거에 화살의 〈살대〉[125]를 심었던 밭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매우 울창한 곳으로 전해진다. 사장(射場)에서 사용한 병사들이 화살대를 여기서 나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 솔대왓의 위치와 현상태

가막자리, 아막(阿幕)座里

- 분류: 법제지명-관아지명
- 위치: 수산리 782 일대이다.
- 과거에는 속칭 〈가막자리〉라고 하는 지경에 韓씨와 吳씨 가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元나라는 제주도에서 삼별초군을 물리친 후 군마 공급을 위해 1276년(충렬왕 2) 8월에 타라치(塔羅赤)를 탐라 다루가치(達魯花赤)로 파견하면서 말 160필을 보내어 水山坪에 탐라목장을 조성하는데, 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본부로 아막(阿幕)을 설치했다. 제주 지역의 동과 서에 설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동서아막(東西阿幕)이라고 불렀다. 동아막은 수산리 水山坪 지경, 서아막은 한경면 고산리 지경에 위치했다. 이때의 아막을 설치했던 장소를 가리켜 주민들은 〈가막자리〉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막짓은 자리〉[126]라고도 했다.

---

125) 살대: 화살의 몸을 이루는 대를 말하며 시누대로 만들었다. 우리마을에서는 시누대를 〈수리대〉라고 한다.

126) 막 짓은자리: 증언 강범식 29대 이장




▲ 가막자리 위치와 현상태

내찻물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초등학교 북쪽 성(城) 밖에 위치한 수산리 579-11 일대이다.
- 1439년(세종 21) 수산성을 처음 쌓을 당시 잔나비띠 소녀를 땅에 묻고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당시 성을 쌓으면서 못이 이루어졌으므로 후에 잔나비띠 소녀의 눈물 어린 못이라는 데서 납차(申差)[127] 물로 불렸는데 와전되어 〈내찻물〉이라 불린다.




▲ 내찻물 위치와 현상태

127) 납차(申差): 申은 12띠 중 아홉 번째의 원숭이의 한자이다. 〈납〉이란 표기가 훈민정음에〈납은 원숭이다(위원, 爲猿)〉로 나온다. 그 뒤 정철〈鄭澈, 1536~1593)〉 사설시조 〈장진주사(將進酒辭)〉에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파람 불제 뉘우친들 어찌리로 나온다. 잔나비는 〈장진주사〉 이본(異本)에 〈잣나비〉 〈○납이, ○나비, ○나뷔, 잔납이〉 등의 표기로 보이기도 한다. 곧 15세기까지는 〈납〉으로 쓰였으며 16세기에 〈잔나비〉와 함께 쓰이다가 18세기 이후는 〈잔나비〉만 나온다. 먼저 〈납〉은 〈이〉 접미사가 붙어 〈나비〉가 된다. 〈납〉은 〈날다(飛)〉의 〈날〉과 같은 말이다. 곧 날>낣>납이 된다. 동물은 생김새, 색깔, 행동거지 등에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납〉은 바로 〈날아다니는 짐승〉에서 나온 말이다. 〈잔나비〉의 〈잔〉은 〈잠자리〉의 고어가 〈잔자리〉인 것에 비춰보아 이 〈잔〉과 같은 말로 역시〈날다〉의 의미이므로 동어반복이다.(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백문식, 2006)

소저문(孝子門, 효자문), 효자문거리

- 분류: 인물인사지명-도덕지명
- 위치: 수산리 526 일대이다.
- 홍효자의 정려(旌閭)가 세워진 곳이라는 데서 〈소저문〉〈효자문거리〉로 불린다. 지금 지도상에는 〈산성효자로〉로 표기되어 있다.




▲ 효자문거리 위치와 현상태

젯동산(祭童山), 포젯(酺祭)동산

- 분류: 인물인사지명-풍속지명
- 위치: 수산리 2,136 일대이다.
- 포제단은 언제 지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제사를 지내던 동산이라는 데서 〈젯동산〉 〈포젯동산〉이라 한다. 지금도 매년 마을제인 포제를 여기서 지내고 있으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포젯동산의 위치와 현상태

사싯동산(四時童山), ᄉᆞ싯동산

- 분류: 인물인사지명-풍속지명
- 위치: 수산리 740-1 일대이다.
- 현재의 포제와 같이 마을의 모든 재앙을 막기 위한 기원제(祈願祭)인 사시제(四時祭)[128]를 지내던 동산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남제주교회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에는 길가 동쪽으로 얕은 물이 비교적 많이 고이는 못이 있었으며,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하기도 하였다. 이 동산은 아이들이 놀이터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자치기, 연날리기, 축구 등을 많이 했던 곳이다. 개구리와 맹꽁이가 많아서, 여름철에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현재는 사유지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ᄉᆞ싯동산> 남서쪽 끝 부분에 〈사싯굴, ᄉᆞ싯굴〉이 있다.



▲ ᄉᆞ싯(四時)동산의 위치와 현상태

내팟동네, 천외동(川外洞)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한 동네이며, 〈老乙於是, 노을어시〉 동산에서부터 동치못 근처까지를 말한다.
- 유래 및 현 상황: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는 학교 앞 마을 한복판을 지나는 큰 냇창이 있었다. 우리마을은 홍수가 잦았는데 장마철이 되면 내가 터져서 〈내팟동네〉 학생들은 등교를 할 수 없었고, 당시에는 집이 떠내려갈 정도였다. 이처럼 냇창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천외동(川外洞)이라고도 했으며, 내(川)와 바깥(外)의 복합어이다.

---

128) 사시제(四時祭): 사계절에 지내는 제사로서 時祭라고도 한다. 四時는 연중의 네 철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한 달 중의 네 때인 회(晦), 삭(朔), 현(弦), 망(望) 또는 하루 중의 네 때인 단(旦), 주(晝), 모(暮), 야(夜)를 가르킨다.



▲ 〈내팟동네〉라고 불렸던 천외동(川外洞) 현상태(사진제공 강승욱)

노을어시(老乙於是)동산

- 분류: 자연지명-지형지명
- 위치: 수산리 45-1 일대이다
- 유래 및 현 상황: 고성~수산 간 길고 나지막한 동산을 말하는데, 길이 200m 정도의 구간이다. 지금은 4차선 도로포장과 함께 동산 높이가 꽤나 낮아진 상태이다.

사장(射場)

- 분류: 법제지명-군사지명
- 위치: 수산리 남서쪽 300m 지점으로, 진빌레 인근이다.
- 과거 수산진성을 수어(守禦)할 당시 이 城의 성정군(城丁軍) 등이 활을 쏘는 훈련을 하던 곳이라는 데서 연유된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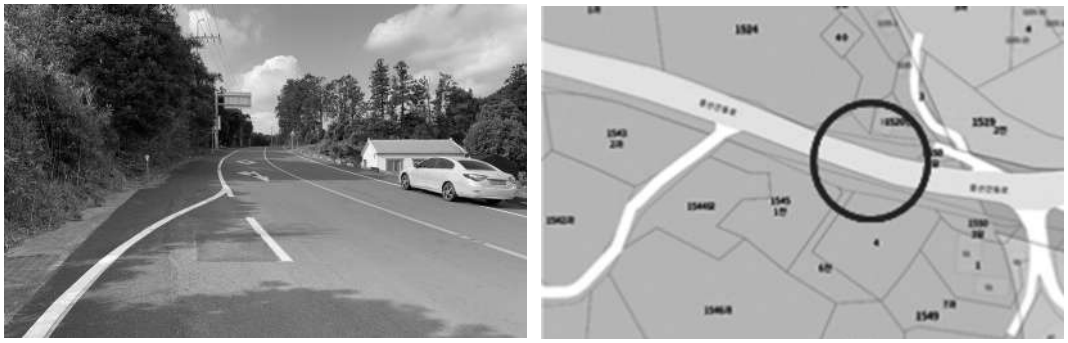
▲ 〈老乙於是, 노을어시〉의 위치와 현상태



▲ 사장(射場)

사냥미동산, 사ᄂᆞ뫼[129]동산, 사농미동산

- 분류: 인물인사지명-풍속지명
- 위치: 수산1리 사무소에서 서쪽 500m 지점, 수산리 1,524 일대이다.
- 옛날 마을이 공동으로 사냥을 하여 분육(分肉)을 하거나 사냥을 시작하기 위하여 당시 사냥꾼들이 모이던 동산인데 연유한 이름이다.



▲ 사냥미동산, 사ᄂᆞ뫼동산, 사농미동산의 위치와 현상태

왕주굴, 왕자굴(王字窟)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북쪽에서 시흥리 경계지점으로 2,241-11 일대이다.
- 지형이 임금 왕(王)자 모양과 같다고 하여 왕자굴이 와전되어 왕주굴이 되었다.



▲ 왕주굴, 왕자굴(王字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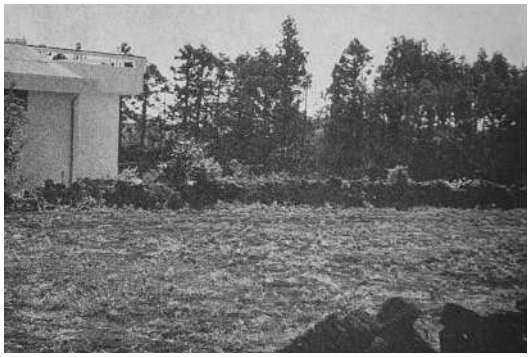
양모감(梁牧監)터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리 남쪽 100m 지점에 있다.
- 梁氏 성을 가진 목감(牧監)[130]이 살던 집터이다. 모감은 목감의 변형이다.

---

129) 사ᄂᆞ뫼: 사냥꾼들이 모이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사농메우는〉의 변형이다

130) 목감(牧監): 고려시대, 각처의 목장을 맡아 감독하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충선왕(忠宣王) 때에 사복시(司僕寺)에 병합하였다.



▲ 양모감(梁牧監)터



▲ 새미지거, 사미지거(巳尾之擧)

새미지거, 사미지거(巳尾之擧)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에서 송당 쪽 1km 지점으로 2,077-3 일대이다.
- 벌판이 지형지세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개장ᄆᆞ르(開長旨, 개장지)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 1,492 일대이다.
- 기다란 언덕배기, 즉 능선이 시발점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조족동산(鳥足童山)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2,243 일대이다.
- 지형이 새의 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조족동산이라 불린다.

물막에움, 물막산전, 마막산전(馬幕山田)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2리 북쪽 200m 지점으로 3,495 일대이다.
- 수산리 갑부 큰가름 강집에서 말(馬)을 목양(牧養) 할 당시 말과 소의 관리를 위해 막(幕)을 지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물막에움〉은 말을 가두어 놓는 곳을 일컫는다.



▲ 개장ᄆᆞ르(開長旨)



▲ 조족동산(鳥足童山)



▲ 물막에움, 물막산전, 마막산전(馬幕山田)



▲ 삼성지궤, 삼성제궤

삼성지궤,[131] 삼성제궤

- 분류: 인물인사지명-교육지명
- 위치: 수산리 1,947 일대이다.
- 〈큰가름〉 〈통개나물〉 〈동백낭가름〉 등 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곳에 있는 자연동굴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원래는 〈삼성뒤궤〉라고 불렀다. 〈삼성뒤궤〉가 와전되면서 〈삼성지궤〉라 불린다.

사또앉은ᄆᆞ르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리에서 시흥리 쪽 할렐루야 농장입구 일대이다.
- 옛날 고성리가 정의현청 소재지이던 시절 사또(원님)가 지나가다 앉아 쉬던 동산이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31) 삼성지궤: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러 사람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제주에서는 〈상뒤메운다〉 〈상뒤모인다〉라고 하며 동굴을 〈궤〉, 바위 그늘을 〈엉덕〉이라 한다.



▲ 사또앉은무르



▲ ᄉᆞ생이굴, 효생이굴(孝生伊窟)

ᄉᆞ생이굴, 효생이굴(孝生伊窟)

- 분류: 인물인사지명-생활방식지명
- 위치: 수산리 서쪽 2km 지점으로 2,920 일대이다.
- 이 지경에 훌륭한 묘(墓)가 있어서 이 묘의 운기로 효자가 탄생하였다고 하여 후에 〈ᄉᆞ생이굴〉 〈효생이굴〉이라 한다.

곤됴리동산(壺乭伊童山)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리 2,943 일대로 시흥리와 경계에 있다.
- 〈곤됴리동산〉이 있는 곳은 과거 수산리 갑부 〈큰가름 강집〉 마장으로 그 집안 종들 중에 말을 담당한 〈복돌이〉라는 종이 말을 가꾸기 위해 매일 이 동산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곤돌, 壺乭〉이 변형되어 〈곤됴리〉가 되었다.

굴묵남굴

- 분류: 산업지명-수목지명
- 위치: 수산2리 서북쪽 1km 지점이며 수산리 2,950 일대이다.
- 굴묵이[132] 나무가 있는 동굴 주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132) 굴묵이: 느티나무를 말하며 제주방언이다. 이외에도 굴묵남, 굴무기, 느끼낭 등으로 불린다.



▲ 곤됴리동산(壺乭伊童山)



▲ 굴묵남굴

석곽불미(石槨墳墓, 석곽분묘)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3,884-5 일대이다.
- 돌로 된 장구(葬具)로 꾸며진 묘소가 있는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분묘가 와전되어 불미가 되었다. 불미는 분묘(墳墓)의 한글 표기이다.

검은머들,[133] 거믄머들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학교 남쪽 500m 지점으로 수산리 194-1 일대이다.
- 현재 이 일대의 바위나 암반이 전부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데서 연유한 지명이며, 특히 이 일대는 가시덤불 등 〈머들〉이 많았다. 부근에 〈검은머들당〉이 있다.



▲ 석곽불미(石槨墳墓, 석곽분묘)



▲ 검은머들

133) 머들: 밭 가운데 돌을 모아 놓은 것을 〈머들, 磊(뢰)〉이라고 한다. 돌이 많이 쌓여 있고 잡목이 우거진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등과 어울려 돌무지와 덤불로 이뤄진 동산 같은 지형을 일컫는 제주방언이다.

관전(官田)밭동산

- 분류: 행정지명-토지지명
- 위치: 수산2리 마을회관 서쪽 50m 지점이다.
- 관(官) 소유의 밭이 있는 동산인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망ᄆᆞ르, 망지(望旨)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리 남서쪽에서부터 난산리 경계지점이다.
- 이 지역은 높은 능선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널리 내다볼 수 있는 곳으로 옛날 마을에서 공동 사냥할 때 망꾼들이 꿩과 사냥꾼들의 위치와 동태를 살피던 언덕배기인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농남ᄆᆞ르[134]

- 분류: 산업지명-수목지명
- 위치: 수산2리 입구 일대이며 수산리 1,660 일대이다.
- 농남[135] 즉 녹나무가 붙여진 이름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날목도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1리와 2리의 중간지점으로 수산리 2,363-4 일대이다.
- 말과 소를 가두어 두던 입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남선불미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2리 방갈로 서쪽 지역이며 수산리 4,171 일대이다.
- 들판이름이다.

---

134) ᄆᆞ르: 〈머들〉 등과 어울려 돌무지와 덤불따위로 이뤄진 들판을 일컫는 제주방언이다.
135) 농남(녹낭): 녹나무의 제주방언이다.



▲ 날목도



▲ 명지왓, 맹지왓

명지왓, 맹지[136]왓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2리 서쪽 방갈로 터 부근으로 수산리 4,190 일대이다.
- 이 일대 지역이 〈머들〉이나 숲 따위가 없이 명주처럼 매우 매끄럽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누에고치를 치기 위해 뽕나무를 심었던 밭인 데서 연유했다는 설이 있다.

당낭[137]벵듸, 닥낭벵듸[138]

- 분류: 산업지명-수목지명
- 위치: 수산리 2,279 일대이다.
- 닥나무가 숲을 이룬 벌판을 일컬어 붙여진 이름이며, 〈당낭〉 〈닥낭〉은 닥나무의 제주방언이다.

답단이

- 분류: 인물인사지명-생활방식지명
- 위치: 수산1리에서 구좌읍 송당리 방향 중산간도로 500m 지점으로 2,936 일대이다.
- 예전에 접(接)을 모아 밭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공동 경작하는 경우 공동관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관리자를 두었으며, 이를 〈답하니〉라고 했는데 변형되어

136) 멩지: 명주의 제주방언이다.
137) 당낭: 〈닥남〉 등과 어울려 〈예덕나무〉를 일컫는 제주방언이다.
138) 벵디: 화산활동으로 생겨나 오름과 오름 사이를 잇는 제주 특유의 들판을 일컫는 제주방언이다.



▲ 닥낭벵듸



▲ 답단이

〈답단이〉가 된 것이다. 〈답하니〉 품삯은 그가 관리하는 평수에 따라 곡물로 주기도 하고 밭의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 주어 경작하여 얻은 소출(所出)[139]로 품삯을 갈음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밭을 일컬어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방사탑 등 탑을 쌓았던 곳을 일컫기도 한다.

당머르거, 당ᄆᆞ르

- 분류: 인물인사지명-미신지명
- 위치: 수산리 서쪽 2km 지점이며 수산리 3,424 일대이다.
- 예전에 이 언덕배기에 당(堂)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뒷가름[140]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1리 사무소 북쪽 700m 지점이다.
- 마을 중심에서 뒤쪽에 형성된 동네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번지왓

- 분류: 산업지명-토지지명
- 위치: 수산초등학교 북쪽 500m 지점이다.
- 밭 이름이다.

---

139) 소출(所出):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을 의미한다.
140) 가름: 〈동네〉의 제주방언이다.

벌라리왓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 4,084-3 일대이며, 남거봉에서 서쪽 400m 지점, 좌보미로에서 남쪽 60m 지점이다.
- 벌라리궤, 벌라릿궤가 있는 부근을 말한다.

본도리동산

- 분류: 자연지명-지형지명
- 위치: 수산2리 남쪽으로 2,514 일대이다.
- 밭이 지역은 동산이라기보다는 능선에 가까운 긴 마루턱이다. 지금은 감귤원이 조성되어 있다.

뽀랑낭굴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1리에서 송당리 쪽 3km 지점으로 2,264 일대이다.
- 동굴이 있는 들판의 이름이다.

샌동산, 백동산(白童山)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2리 서쪽 2.5km 지점으로 3,906 일대이다.
- 이 동산에 하얀 바윗돌 큰 것이 우뚝 서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뽀랑낭굴



▲ 센동산, 백동산(白童山)

샛닷동산

- 분류: 인물인사지명-교육지명
- 위치: 수산2리 남쪽으로 2,780 일대이다.
-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향회(鄕會)를 하던 동산의 이름이다.

동문동(東門洞)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진성 동문(東門) 방향 일대이다.
- 마을동네 이름으로 수산진성 동문(東門) 방향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문동(西門洞)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진성 서문(西門) 방향 일대이다.
- 마을동네 이름으로 수산진성 서문(西門) 방향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교동(敎洞)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초등학교 앞 일대이다.
- 마을동네 이름으로 학교 앞 방향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섬팟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초등학교 서쪽 300m 지점으로 646 일대이다.
- 지금의 이 밭의 지형지세가 건천(乾川)으로 에워싸여 있어 마치 섬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비(善碑)동산

- 분류: 인물인사지명-풍속지명
- 위치: 수산2리 뒤굽은이 남쪽 일대이다.

■ 지금의 성읍리인 정의 고을에서 목안 즉, 지금의 제주시로 통하는 길가에 자리 잡은 동산이다. 그 당시 선비들이 순력(巡歷) 다니다가 이곳에서 쉬었다 가므로 이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는 선정비가 세워졌었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 선비동산과 위치

성전(城田)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현재의 수산초등학교 운동장이다.
■ 수산진성이 처음 축조 당시 성 내부와 초창기 학교에는 지금의 학교 운동장에 〈바령팟〉이 있었다는 연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분이머들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북쪽 100m 지점으로 1,359 일대이다.
■ 돌무지로 이루어진 머들 이름이다.

쉘목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2리 서쪽 2km 지점으로 3,026 일대이다.
■ 돌이 지역 일대 지형지세가 마치 누워 있는 〈소의 목〉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막은산전

- 분류: 자연지명-지형지명
- 위치: 수산리 서쪽 1·2리의 중심을 이루는 산전으로 1,603 일대이다.
- 밀림지대의 끝. 즉 끝이라는 데서 막은 산전이라 한다.

물장통

- 분류: 인물인사지명-풍속지명
- 위치: 수산1리와 2리의 중간지점으로 1,605-6 일대이다.
- 과거 수산리 갑부 큰가름 강집[141]에서 많은 말을 키우면서 낙인[142]을 찍고, 귀표[143]를 하고 〈말갈기〉와 〈말총〉을 벨 당시 거두어 드리는 밭이라는 데서 〈물장통〉이라 불린다.

황무순이 가름, 황무술이, 황무수(黃茂藪)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4,697 일대이며, 궁대오름 북쪽 방향이다.
- 옛날 동네 이름으로 이 동네는 1948년 4·3사건 이전까지 주민이 살던 동네이나 이 당시 내려진 소개령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동네가 없어졌다. 황무수(黃茂藪)는 『성산포 城山浦(조선총독부), 1918』에 표기되어 유일하게 마을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 황무술이, 황무순이, 황무수(黃茂藪)

141) 수산리 갑부 큰가름 강집: 수산리 1,293-1, 611-1 일대에 살았던 강봉휴(康鳳休), 강승보(康承保) 집안을 일컫는다.
142) 낙인(烙印): 한살박이 송아지나 망아지의 엉덩이에 표시를 하는 일
143) 귀표(耳標): 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그 귀에 다는 표지이다. 털빛, 반문 등으로 구별할 수 없는 가축에 많이 사용되는데, 귀걸이를 다는 법, 입묵(먹물로 살 속에 글씨나 그림을 새겨 넣음)하는 법, 귀를 베어 표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

강비장터(康裨將터)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리 7반 일대이다.
- 강씨 성을 가진 비장(裨將)[144]이 살았던 집터라는 데서 유래한다.

상뒤동산, 충이동산(充耳薑山), 버리동산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리 1,242 일대이다.
- 이 동산은 지형이 벌처럼 생겼다고 해서 충이동산(充耳薑山)이라고 부르던 것이 와전되어 〈버리동산〉이 되었는데, 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부락민이 모여 회의를 가진 후부터 〈상뒤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상뒤동산, 충이동산(充耳薑山), 버리동산

광달이터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2리 중심에서 서쪽이며 수산리 4,139 일대이다.
- 〈광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기심이터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2리 중심에서 서쪽이며 수산리 4,139 일대이다.
- 〈기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

144) 비장(裨將): 부장군(副將軍), 감사(監事), 유사(留事), 병사(兵士) 등을 따라다니는 관원을 말한다.



▲ 광달이터



▲ 기심이터

동백낭가름, 동박낭가름[145]

- 분류: 산업지명-수목지명
- 위치: 수산2리 서쪽 1km 지점인 수산리 3,466 일대이다.
-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ᄃᆞ리> <남ᄃᆞ리ᄀᆞᆺ> <남다리> 등으로 불리며, 우리 마을의 설촌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역증보탐라지 國譯增補耽羅誌, 2016』에는 木橋藪(목교수)(현청에서 동쪽으로 17리 거리에 있다, 左縣東十七里(좌현동십칠리))로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券 38, 旌義縣)에는 大橋藪(대교수)(현청에서 동쪽으로 17리 거리에 있다, 左縣東十七里(좌현동십칠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동여비고 東輿備考)』『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總圖)』『제주도지도 濟州道地圖(지나조선고지도 支那朝鮮古地圖)』『탐라전도 耽羅全圖(고지도첩 古地圖帖)』등 4개 지도에는 大橋藪(대교수)로 표기되어 있다.

뒷선돌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낭곳>에서 서북쪽 500m 지점에 있다.
- 수산지경 뒤에 큰 돌이 우뚝 서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널은밧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2리 중심에서 서북쪽 4km 지점에 있는 밭이다.
- 밭이 워낙 넓어서 이쪽에서 김을 매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도 못 알아듣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145) 동백낭, 동박낭: 동백나무의 제주방언이다. 동백낭가름에는 복쟁이터, 소광기라는 지명이 있어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城山邑誌, 2005)



▲ 동백낭가름, 동백남가름



▲ 뒷선돌

물구렁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2리 서쪽 3km 지점으로 수산리, 난산리, 성읍리 경계이다.
- 여러 갈래로 흐르던 물줄기가 비로소 이곳에서 한 지점으로 모아지면서 큰 수렁을 이룬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미룡당거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와 구좌읍 종달리 경계에서 남쪽 300m 지점으로 3,627 일대이다.
- 용눈이 오름 즉 용의 꼬리에 해당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ᄆᆞ르〉의 형태가 용의 꼬리를 닮았다.

삼쟁이굴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2리 서쪽 속칭 〈대틈곳〉 앞에 있으며 4,758 일대이다.
- 삼정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데서 연유한다.

성돌이터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2리 서쪽에 있는 속칭 〈동백낭가름, 남ᄃᆞ리〉 마을 안에 있다.
- 성돌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집터라는 데서 연유한다.

양수(兩水, 良守)[146]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리 2,011 일대이다.
- 양수라는 지명은 두 개의 구전이 내려온다. 첫째는 고려시대 良守(양수)의 亂(난)[147]을 일으켜 경래관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명인 양수(良守)와, 또 다른 하나는 큰비가 오면 수산한못에서 두 갈래로 물이 넘쳐 흘렀다는 지명인 양수(兩水)가 있다.

윤남통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리 2,011 일대이다.
- 윤노리나무가 많은 물통이라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물통이 4개 있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목욕과 빨래하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왕뫼동끝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리 대왕산 동쪽 구좌읍 연결도로 옆에 있는 곳이다.
- 대왕산 동쪽 끝이라는 데서 연유된 이름이다.

유지낭ᄆᆞ르

- 분류: 산업지명-수목지명
- 위치: 수산2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4km 지점으로 속칭 황무술이 동쪽 지역이다.
- 유자나무가 많이 있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화에 의하면 이곳에 신당(神堂)을 세워 제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 유지낭ᄆᆞ르

146) 지명유래는 양수(良守, 兩水) 2개로 불리고 있으나, 여기서는 양수(兩水)지명 한개로 분류하였다.
147) 제주지역에서 1168년(의종 22)에 양수(良守)가 일으킨 민란을 말한다. 水山里誌(1994)에서는 良守亂과 관련하여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지 못해 본 도서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 장지동산



▲ 츠남동산, 차남동산

장지동산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2리 3km 지점으로 4,725 일대이다.
- 난산리 경계에 기다란 동산이 누워 있다는 데서 연유된 이름이다.

츠남동산, 차남동산

- 분류: 인물인사지명-생활방식지명
- 위치: 수산2리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4,203 일대이다.
- 예전에는 사람들이 들로 나가면서 한 참,[148] 두 참에 경계목을 세웠는데 경계목이 세워져 있던 자리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과거에 이 부근에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왕머들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1,378 일대이다.
- 이 왕머들은 어찌나 거대했는지 원거리에 위치한 속칭 〈미룡당거〉에서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왕머들이 운기(運氣)로 해서 수산리에 인걸(人傑)이 난다고 전해진다.



▲ 왕머들

148) 한 참: 참은 거리를 재는 단위이며, 한참은 약 5리이다.

항통, 책갑통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 2,515 일대이다.
- 항아리를 닮은 물통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수도 시설 전까지는 식수로 이용했는데 밑바닥에는 관석이 깔려 있어서 물이 맑았다. 이 옆에는 책갑을 닮은 팡돌이 있어서 〈책갑통〉이라고도 했다.



▲ 항통, 책갑통

왕자동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대왕산 앞 일대를 가리킨다.
- 대왕산 지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동네 이름으로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안골쇠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리 1,270-1 일대 안쪽 길이다.
- 동네가 안쪽 골목으로 길게 들어서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판거리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리 316 일대이다.
- 과거에 시장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나, 시기나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 안골쇠



▲ 장판거리

뒷벵디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수산리 1,291-1 일대이다.
- 마을 뒤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넓은 벌판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뒷벵듸

쇠선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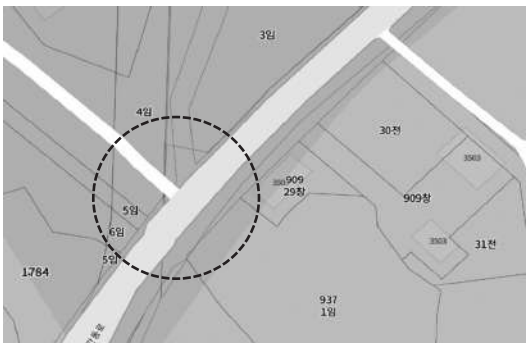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리 3,335 일대이다.
- 부부석 전설과 관련하여 나오는 지명으로 확실한 유래는 없다.

신술므르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 남쪽 1km 지점인 수산리 973 일대이다.
- 이 지역은 능선에 숲이 울창한데 신(神)이 사는 숲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근처에 〈신술일뤠당〉이 있다.



▲ 신술므르



▲ 신술므르의 위치

탈왓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내팟동네 746 일대이다.
- 이 일대에 〈탈〉[149]이 많이 열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가름, 거동(巨洞)

- 분류: 자연지명-위치지명
- 위치: 마을회관 북쪽 200m 지역으로, 수산리 1,293-1, 611-1 일대이다.
- 동네 이름으로 큰가름댁으로 불리워지는 과거 康씨 일가들이 모여 살았던 부근을 말한다. 우리마을의 설촌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마을회관 북쪽 200m 지점에서 후박나무 보호수가 있는 곳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강봉휴, 강승보 사장 등 康씨들이 살았던 동네이다. 큰가름은 우리 마을의 동백낭가름, 통개나물 동네와 함께 설촌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진개ᄆᆞ르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대수산봉 서남쪽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
- 능선이 길게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굴랭이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 4,356 일대이다.
- 이 지역 일대가 소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가름 일대

149) 탈: 산딸기의 제주방언이다. 학교에 세워진 康公承保記念碑에도 〈탈왓경〉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다. 〈탈왓〉은 〈탈〉이 있는 밭을 말한다.

백밭(百田)

- 분류: 자연지명-성질지명
- 위치: 수산리 3,384 일대이다.
- 이 지역에 밭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백밭(百田)주변의 밭들이 많이 보인다.

박정이팟

- 분류: 인물인사지명-인물지명
- 위치: 수산한못 서쪽 500m 일대이다.
-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소유했다는 데서 연유된 이름이다.

역왓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한못에서 300m 일대이다.

남곳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3,558-1 일대이다.
- 수산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낭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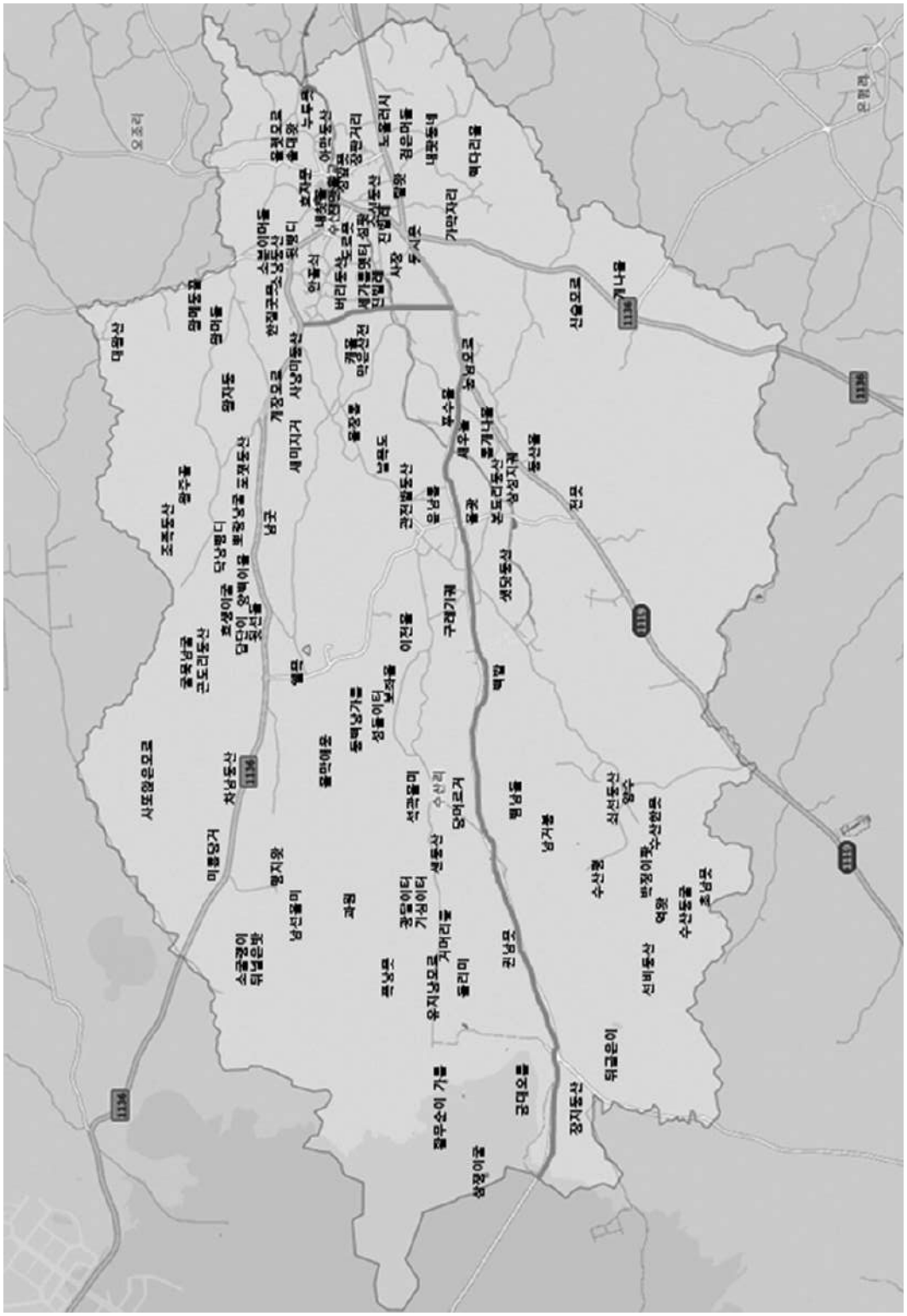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482-2 일대이다.
- 이 일대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괏

- 분류: 자연지명-자연물체지명
- 위치: 수산리 2,783-1 일대이다.
- 이 지역 밭과 들판에에 물이 많이 고인다는 데서 유래했다.

뱀남돌

- 분류: 자연지명-형상지명
- 위치: 수산리 3955 일대이다.


오조리
대왕산
왕메뚜골
왕메들
왕자동
조족동산
왕주골
굴묵남골
곤도리동산
사또원은오르
처남동산
미륵당지
명지왓
남선돌미
소줄경이
뒤냄은왓
과원
즉낭뜨
유지낭오르
할우숫이 가늘
삼정이굴
금대오름
장지동산
뒤글은이
신비동산
여왓
쁘정이쪽수산원뜨
수산동굴
초남뜨
남지봉
수산평
삼선동산
양수
원남뜨
거머리굴
올리미
생동산
수산리
당어르저
구렁기궤
백일
이진물
관진밭동산
남목도
세미지거
사냥매동산
계월
막은진전
물장올
남조
개장오르
한점조뜨
수분이머들
윗대왓
누동산
안돌식
버리동산노르뜨
제가름옛터
진밭대
사장
동시묵
가믓자리
헤다리물
냉못동네
정은머들
노을러시
장문거리
내천동
수산동
호자묵
신술오르
가나물
전뜨
삼지동산
동산물
본도리동산
물귀
세우물
뉴남오르
물개나물
뉴수물
삼정지개
샛모동산
동산이터
보좌물
동백낭가름
물뜨
다당이 왕백이물
보장낭굴
조팟동산
다당뱅디
흐생이굴
굴묵남골
곤도리동산
웃진물
1136
1115